

최 종 보 고 서

2040 경북여성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2012.11



2040 경북여성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연구기관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책임자 : 이 경 속(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 이 영 석(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 수 연(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김 정 희(경북대학교 외래교수)
연구보조원 : 서 지 영(대구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 우리사회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임. 여성들의 생애전망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이전 세대 여성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음. 이는 경제적인 위기상황과 맞물려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었으며, 또한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됨.
- 또한 가족구조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즉,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구, 비혼 1인 단독 여성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외 다문화가정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우리사회의 변화들 즉 저출산 고령화, 1-2 가구의 증가 및 가족유형의 변화, 새로운 정책 요구 계층의 등장(2030여성, 다양한 여성계층, 젠더정책의 파트너로서 남성) 등은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
- 이처럼 사회적으로 정책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지역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결혼-출산 등 중요한 생애사적 사건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전략과 선택을 하고 있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애전망과 삶의 현실적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정책욕구를 가시화시켜 지역여성정책 개발의 현실적 기반으로 삼고자 함.
- 또한 경상북도 여성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를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좀 더 경상북도 여성의 현실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20-40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북도 여성과 가족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향후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기 위해 가족·문화, 취업, 복지, 건강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생활밀착형·맞춤형 정책대안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함.
- 본 연구는 2011년도에 시행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T.O.P. 경북 프로젝트-정책수요조사’의 연장선상임. 지난해 연구는 경북지역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원래 의도된 것과는 달리 응답자 분석 결과 주로 30대와 40대 여성 위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20대 응답자가 부족하였음. 또한 14개 시군에서만 실시되어 경북지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그리하여 금년도 조사에서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질이 검증된 조사요원과 조사방법을 이용,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접근방법은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동시에 지향함.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은 기존 통계자료 재설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으로 이루어짐.
- 설문조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지역, 연령별 인구비례에 맞추어 이단층무작위표본추출(Two-stage Random Sampling)로 표본선정이 이루어졌음. 계층, 직업, 가족형태 등을 최대한 다양화하여 현실적인 정책욕구를 찾는 데 주력하였음.
- 문헌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의 특징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검토함. 또한 각종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학술지논문 등을 고찰하여 조사항목 및 질문지 개발, 자료 분석 및 해석, 정책 제언 등 조사의 전체 수행과정에 활용함.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에서는 여성경제활동 관련, 출산 및 자녀양육, 안전 및 인권,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등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 본 연구의 구성은 제 I 장에서는 2040 경북여성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에 대한 필요성 및 목적, 내용 및 범위, 방법 및 기대효과를 제시함.
- 제 II 장에서는 경상북도 20~40대 여성을 둘러싼 사회변화 즉 인구현황, 경제활동 현황, 출산 및 육아 관련 현황, 안전 및 인권 관련 현황, 문화활동 현황 등을 제시함. 또한 국내외 생활체감형 정책 사례를 검토분석

함.

-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사회·문화·경제적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40대 여성의 정책인식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해 가구 및 주거생활, 취업상태 및 구직, 결혼 및 가족생활, 출산 및 자녀 양육, 일상생활 및 안전, 문화생활 및 향상 증진방안, 지자체 정책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제시함.
-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북지역 20~40대 여성들의 생활여건 및 현황에 따른 정책적 욕구를 읽어내어 좀 더 여성생활에 밀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그러나 본 연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형태여서, 여성들의 현실과 욕구가 단순화된 문항으로만 표현되기에, 여성들간의 다양한 내부차이를 이해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따름.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여 보다 구분화된 표본들 즉 훨씬 더 초점화된 표적 집단의 사례들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경상북도 2040 여성 현황

- 경상북도 여성인구는 1,342,455명으로 전국 여성의 5.3%를 차지하며, 경상북도여성 중 20~49세 여성은 전체의 40.2%로 전국보다 -5.5%p 낮

으며,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40대 이하 여성비율은 낮고 50대 이상의 여성비율은 높은 편임.

- 20~49세 여성 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시, 다음으로 구미시, 경산시 순으로 나타나지만, 총 인구대비 20~49세 여성비율은 구미시가 여성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5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칠곡군, 포항시 순임. 반면, 20~49세 여성비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의성군으로 나타남. 공업 등 산업기반체제를 갖춘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의 여성이 많은 반면 산업기반이 약한 농어촌은 젊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경상북도 15~49세 여성 경제활동 인구수는 313천명으로 전체 여성경제활동인구의 57.0%에 해당함. 전국 수준보다 -11.9%p 낮은 수치임. 연령별로 보면 40~49세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15~29세로 나타남.
- 2011년 우리나라 여성고용 현황은 전년에 비해 20~30대 여성고용이 감소하고 40대 이상 여성고용이 증가하여 취업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1/4분기 기준으로 경상북도 시군별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1.9%로 절반 이상의 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시군은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순인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시군은 영주시, 포항시, 문경시로 나타남. 농촌 지역의 여성경제활동 비율이 높고 도시지역이 낮은 이유는 농업에 종

사하는 여성수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경북지역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마련과 생계책임, 경제력 확보가 주를 이루고 있음.

○ 2011년 전국 고용율은 여성의 경우 48.1%, 남성의 경우 70.5%로 여전히 남녀 격차가 크게 나타남. 게다가 여성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는 남성(69.4%)에 비해 상용(50.3%)의 비율이 낮고, 임시 및 일용으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이 높아 여성의 고용 상 지위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여성의 임금수준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여성이 91.8%를 차지하고 있음. 남성의 경우 3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68.9%로 남녀 임금지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총 근로일수, 정상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은 각각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월급여액에 있어서는 정규직 여성의 급여액은 남성의 급여액에 비해 67.9%수준에 머물러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나타난 격차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근로시간, 근로임금 불평등을 시사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서비스 지원체계는 경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은 경상북도 내 각 시군의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기업인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취업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 산 전후 휴가자수에 비해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64.4% 수준에 머물러 있음. 미약하지만 남성육아휴직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육아에서의 아버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경상북도의 합계 출산율은 점차 낮아져 2005년 1.1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회복되어 2011년은 2001년 수준보다 높은 1.43명으로 기록되었음. 경북의 출산율은 전국 출산율보다 높으며, 이는 가족중심의 전통적 사회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2011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시군은 칠곡군(2,016명)인 반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시군은 울릉군이고 다름으로 청도군으로 기록됨. 울릉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산 가능한 젊은 층 인구의 정주율이 낮을 뿐 아니라 군내로 유입되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이고, 청도군은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출산율이 낮음. 반면 칠곡군은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인근의 구미시와 대구시에 생활 및 정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경북지역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 구간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29세로 나타나며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25~34세 구간이 여성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여성이슈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의 보육시설수는 2012년 1월 현재 2,171개소로, 보육시설에 등록된 0~5세 아동의 보육률은 경상북도 53.4%로 전국(48.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군 보육률은 칠곡군이 가장 높은 반면 울릉군이 가장 낮은 보육률을 보이고 있음. 특히 군위군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보육시설(4개소)도 울릉군(2개소) 다음으로 적어서 아동수가 비슷한 영양군에 비해 열악한 보육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는 126,240건이며 그중 가정폭력 상담은 43.7%를 차지하고 있음. 가해자는 배우자가 82.4%로 압도적으로 높음.
- 전국의 성폭력 범죄 접수건수는 2012년 8월 현재 14,662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전체 성폭력 사건 중 기소율은 2002년 46.5%였지만 그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여 2012년 8월 말 현재 41.0%로 낮아졌음.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친고죄 폐지를 통해 행위자 처벌이 강화되어야만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과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기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경우 농어촌 지역 의료체제가 양호하지는

않은 편임. 특히 여성을 위한 산부인과 의원은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는 여성에게는 산부인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진료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농어촌의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민간 산부인과 운영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산부인과 의원의 설치가 필요함.

- 여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시군의 대표적 시설은 여성문화회관임. 특히 농어촌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여성회관이 여성의 문화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최근 시군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어 명칭변경을 한 시군이 늘어나고 있음.
- 시군 여성 문화활동은 전통적인 여성들의 영역이었던 의, 식, 주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교육, 영어 등 어학교육, 컴퓨터 교육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인문학 열풍에 힘입어 각 지역의 역사와 접목한 인문학교육이 증가하고 있음.
-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정보부족이나 관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보제공의 방식을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3. 2040 경북여성 체감형 정책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 본 연구는 사회, 문화, 경제적 영역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만 20~40대 여성 총 509명을 대상으로, 23개 시·군을 북부자원권, 중서부내륙권, 남부도시권, 동부연안권으로 나누어 총 509명을 대상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 안전 및 인권부분, 문화생활부분, 가족부분, 경상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가 37.5%, 30대 36.0%, 20대 26.5%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상 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권역별로는 동부연안권 33.2%, 중서부내륙권 26.1%, 남부도시권 22.8%, 북부자원권 17.9%로 나타났음.
- 경상북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15-20년 미만 12.6%, 5-10년 미만 9.2%, 10-15년 미만 8.4%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배우자 소득 포함)은 200-300만원 미만 26.9%, 300-400만원 미만 24.2%, 200만원 미만 22.8%, 400-500만원 미만 14.5%, 500만원 이상 8.8% 순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일하고 있는 응답자의 직장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의 경우 59.2%,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15.7%), 무기계약직(13.2%),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9.8%), 파견 용역 회사를 통해 근무하는 형태(2.1%)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정규직에 속하고 있음.

-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는 자녀 양육 및 병행이 어렵다(41.8%), 가족이 아플 때 보살피기 힘들다(21.6%), 직장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가 불안정하다(9.4%),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5.6%), 기타 응답(19.2%) 등으로 나타나므로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이 필요하다(33.1%),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하다(26.1%),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21.6%), 기타(15.0%), 무응답(4.2%) 등으로 나타났음.
-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83.3%, 과거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16.7%를 응답하였음. 또한 향후 취업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한다(76.1%)가 가장 높았으며, 희망하지 않는다(23.4%), 무응답(0.5%) 순으로 나타나 향후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취업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76.1%)가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23.4%)로 각각 나타났으며 취업형태는 전일제(53.3%), 시간제(42.6%), 기타(4.1%) 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27.8%),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23.7%),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10.7%),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9.5%),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8.9%), 원하는 종류의 일자리가 없어서(7.1%)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육아 및 가사 때문에(46.2%), 학업 중이어서(19.2%), 일할 생각이 없어서(7.7%), 내가 원하는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7.7%), 건강, 장애 등의 문제로 일하기가 어려워(5.8%), 창업을 하려고(3.8%)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시간제 고용 기업 확대(25.2%), 기업의 여성구인 활동 확대(25.2%),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20.3%),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17.1%), 취업알선 서비스(8.6%) 순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므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및 기업의 여성취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구인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출퇴근 시간(31.5%), 기업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 수행 준수(29.3%), 보육지원의 확대(17.1%),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10.4%),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10.4%)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업의 여성의 산전후 휴가제도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유연한 근로시간의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해야 할 것임.

- 향후 취업을 고려할 때 가장 충족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27.1%)이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에 쉬운 거리에 일할 수 있는 기업(25.9%), 내 능력에 맞게 보수가 주어진다면(21.0%), 근로시간이 맞으면(19.4%) 등으로 나타나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취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안전 및 인권부분에서는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방법용 CCTV 증설(44.4%)이 가장 많았으며, 경찰 순찰활동 강화(23.4%), 더 많은 가로등의 설치(7.5%), 지역 주민의 자발적 순찰(7.1%) 학교 안전 지킴이 제도의 활성화(6.5%), 신속한 신고체계(5.1%) 순으로 나타나 지역의 방법용 CCTV 증설이나 경찰 순찰 활동 강화 등 지역 안전증진에 적극 참여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되었음.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40.7%),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22.0%),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16.5%),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제공 등)(11.4%) 및 피해가정 자녀 보호(8.8%) 순으로 조사되었음.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56.4%),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12.6)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11.8%), 소규모 단위의 성폭력 예방교육 정기적 실시(11.6%),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제공 등)(6.7%) 순으로 나타났음.

- 최근 1년간 문화 활동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가끔 이용하는 경우(55.2%), 다음으로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23.4%), 자주 이용하는 경우(21.4%)로 각각 조사되었음.
- 따라서 지역민의 문화생활 참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겠으며,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지역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보제공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겠음.
-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본 결과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35.6%), 충분한 가구소득(22.8%), 본인의 안정된 직장(고용안정)(19.1%), 배우자의 양육참여(8.1%), 출산한 여성에 대한 경력상 불이익 문제 해결(6.9%), 주거 안정(5.3%) 순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므로 출산여성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한 경우 남편도 산후휴가(육아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임. 또한 자신의 안정된 고용유지 및 양육에 대한 공적 부담의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보육지원제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순위 제도는 직장 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17.9%)이 가장 높았으며, 영아(만3세 미만) 보육시설의 확충(17.3%),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10.0%), 육아지원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9.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8.1%), 가정 내 시간제 아동돌보미 지원(7.5%), 24시간

보육(6.9%),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6.7%),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5.9%), 유치원의 공교육화(4.9%), 민간보육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2.9%) 순으로 각각 나타났음.

- 향후 예상되는 사교육비 지출 방향에 대해 기혼자에 한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늘어날 것이다(71.5%)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18.1%), 줄어들 것이다(9.2%)로 응답하여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를 위해서는 양육부담에 대한 공적 부담 확대 및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할 것임
-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여성의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정책 등)(49.7%)로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23.4%)로 양육 및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다음으로는 여성인권 부문(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14.3%), 여성문화(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12.4%) 순으로 응답하였음.
-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안전 및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최근 사회적 이슈에 따라 많은 관심을 보였음.

-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 분야예산의 확대(35.8%),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의지(17.7%),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상호업무협력(16.5%),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14.3%),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7.5%), 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지(여성·가족 관련 조례 제정)(4.3%), 일반 도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2.6%) 순으로 응답하였음.
- 따라서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간의 상호 업무협력 네트워크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또한 지역의 다양한 여성관련 단체간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전문적 자질 함양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심층면접은 2011년도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T.O.P. 경북 프로젝트-정책수요조사’시 제시된 심층면접 분석결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설문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개별방문 면접조사시 병행하여 실시함.
- 표집된 연구대상에 대해 가구 및 주거생활, 취업상태 및 구직, 결혼 및 가족생활, 출산 및 자녀 양육, 일상생활 및 안전, 건강, 문화생활 및 향상 증진방안,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질문 그 결과를 조사원이 직접 기록하여 자료로 활용함.
- 심층면접조사결과 우선, 기혼여성 대상 일자리 지원사업은 일가정 양립문제를 고려하여 시간활용도, 근접성, 육아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인터넷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직업교육 등 기혼여성의 교육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 대부분의 구직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특성과 지역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원함. 기존의 일자리에 여성인력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성인력을 흡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친화적이고 지역의 수요가 예측가능한 직종을 발굴이 전제되어야 함.
-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여성들은 자녀들의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사회적 문제로서 그 해결방안 역시 법제도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구체적인 사례로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고민, 어린 자녀들의 놀이시설 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와, 아동 발달에 맞는 상담 및 멘토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
-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안전한 돌봄시설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으며, 특히 중고생의 경우 학습과 관련해서 열악한 학습여건에 대한 불만이 강하였음.
- 이외 지난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몇몇 응답자들은 방과후 학교선생님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이나 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반복적인 재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 문화생활 참여와 관련해서는 일부 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및 군단위 지역 거주 여성들은 문화적 여가 시설의 부재 및 시설 접근성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함. 또한 문화센터의 일률적인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했

으며, 또한 뮤지컬, 연극 등 공연문화 접근성이 어려움을 토로함.

- 문화센터나 여성회관 등에서 시행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있었음. 주로 노래, 요가, 요리 등 천편일률적인 사업위주이며, 간혹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이역시 구직과는 연결되기 어려운 모양새만 갖춘 프로그램임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민의 문화생활 참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겠으며,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지역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보 제공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겠음. 더불어 여성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임.
- 지역사회적응과 관련해서는 귀농가족이나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직까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많으며, 가정내적으로는 자녀와 언어소통의 문제로 부부간, 모자간 갈등 폭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지속적이며 다각도로 학교 및 사회적응 훈련 방안 모색해야 함.
-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언어교육이나 가정상담 등과 관련되어 일방적인 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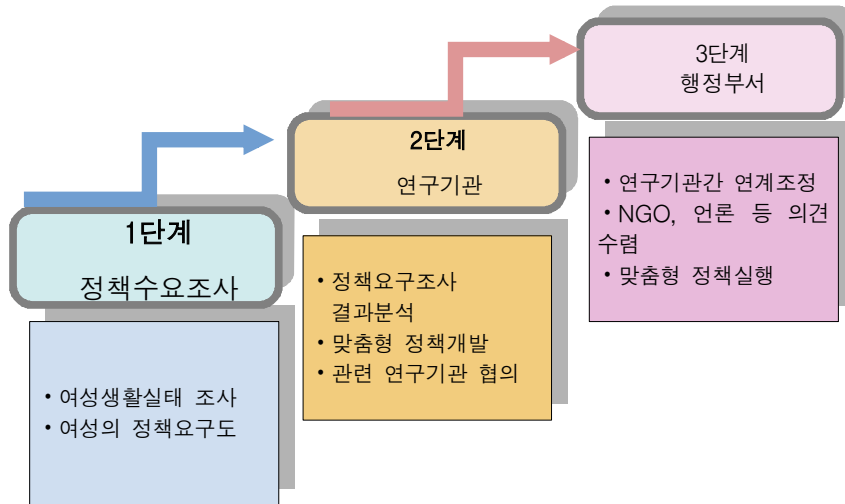
받는 교육이 대부분임. 자기개발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이처럼 급변하는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따라, 그동안 지원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함.

- 현재 우리사회의 저출산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수준임. 가족 내 부부간 성별분업의 더딘 변화 내지 지속은 한국 여성의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됨. 취업여성의 경우 공평한 경제 부담, 불공평한 집안일 부담, 여성이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가족 내의 역할분담 등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미취업 여성의 경우 역시 경제적 책임을 남자가 지니까, 여성은 집안일을 전적으로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됨.
- 그러므로 취업여성의 경우 출산여성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한 경우 남편도 산후휴가(육아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임. 또한 자신의 안정된 고용유지 및 양육에 대한 공적 부담의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를 위해서는 양육부담에 대한 공적 부담 확대 및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할 것임.

4. 정책제언

-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로 여성의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일, 가정양립 정책 등),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 여성인권 부문(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 여성문화(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들고 있으며, 여성의 안전 및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최근 사회적 이슈에 따라 많은 관심을 보였음.
- 무엇보다 여성구직 및 양육 등 각종 지원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함.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의 접근성 및 인지도를 재검토하여 이를 연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여성일자리 창출)을 해야 함.
-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분야예산이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외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의지,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상호업무협력,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간의 상호 업무협력 네트워크이 중요할 것임. 또한 지역의 다양한 여성관련 단체간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성 제고 및 공

무원의 전문적 자질 함양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그림1> 체감형 정책수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정

○ 본 조사를 통해 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문화복지와 교육복지에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향후 이러한 영역에 대한 심층적이며 폭넓은 조사를 통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견된 다양한 정책욕구들을 기존 정책들과 교차해 봄으로써 정책의 공백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정책 과제와 개입 영역을 제안하여야 할 것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 : 보육 및 돌봄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농어촌지역의 자녀 학습관련 공적 영역 강화(공교육

과 사교육의 완충지대 확대/2011년 조사에서는 지역사회출신 대학생, 혹은 지역민의 지식나눔 활성화)

- * 문화적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 문화향유권 강화
- * 평생학습시설 확대 및 다양화 : 성인 교육복지 강화
- * 성폭력, 가정폭력관련 연구기관의 설치 및 지원기관 일원화 체계 확립(2011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도 유사한 상황임)
- *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상 많은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화적 욕구와 교육적 욕구 등을 통합하여 충족할 수 있는 복합형 기관 및 시설 존치(기존 마을주민센터나 경로당 등을 이용한 복합교육문화시설/ 정보화시설 연계/ 지역주민 세대별 통합 효과 기대가능함)



<그림 2> 체감형 정책 사례

<표 1> 정책적 요구 및 접근

정책적 요구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정책 효과
일 가 정 양 립 요 구	▪현실적인 일자리 지원-여 성친화적, 지역적합형 일 자리 창출 및 지원 ▪안전한 돌봄시설, 자녀학습 여건 조성	▶ ▶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관련 기관간 연계 및 협력 구 축 원스탑 지원기 관 활성화 각종 정책모니 터링 강화	▶ ▶ 정책에 대한 접근성 제고 출산을 제고 및 경 제적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여건조성가능 교육 및 문화적 권 리 향유 등 거주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적 빈곤감 해소 및 지역 주민 이탈방지 (평생학습과 문화복 지의 결합)
교 육 적 요 구	▪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 센터 등 시설 종사자 인 성 및 전문성 점검 및 보수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지식나눔 기부 활성화		
문 화 적 요 구	▪문화공연 바우처 제도 운 영 ▪시군소유 공간을 활용한 종합 문화복지시설 구축 ▪평생학습시대 친편일률적 인 교육프로그램 탈피		
지 역 사 회 적 요 구	▪귀농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 원 확대		

제 목 차 례

I. 서 론	3
1. 연구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범위	6
3. 연구 방법 및 구성	6
4. 연구 한계	9
II. 경상북도 2040 여성 현황	2
1. 경상북도 2040 여성 현황	2
1) 경상북도 2040 여성 인구	2
2) 시도별 2040 여성 인구	4
2. 2040 여성의 경제활동	6
1) 경상북도 여성경제활동 현황	6
2) 취업여성의 고용형태	9
3) 취업여성의 임금 및 노동시간 현황	11
3. 출산 및 육아 현황	17
1) 합계출산률	17
2) 자녀보육현황	20
4. 여성의 안전 및 인권보호 현황	23
1) 여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규정한 법	23
2) 가정폭력 범죄 현황 및 처벌 건수	24

3) 성폭력 범죄 현황 및 처벌 건수	25
4) 의료보건 체계	26
5. 여성을 위한 문화활동 현황	29
6. 생활체감형 정책 사례	31
1) 부산시 「부산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	31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체감 정책단」	33
 III. 2040 경북여성 정책수요조사 결과 분석	36
1. 조사 개요	36
1) 조사 목적	36
2) 조사 내용	37
2. 결과 분석	38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38
2) 취업 및 경제활동	41
3) 안전 및 인권 부문	67
4) 문화 부문	70
5) 가족 부문	78
3. 소결	92
 IV. 2040 경북여성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02
1. 조사 개요	102
2. 결과 분석	102
1) 일자리	102

2) 보육 및 양육, 저출산 문제	104
3) 여성의 문화생활 및 평생학습	107
4) 지역사회 적응	108
5) 안전 및 인권	108
 V. 결론 및 정책 제언	 114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표 목 차

<표 II-1> 경상북도 여성 인구(2012년 1월 기준)	2
<표 II-2> 경상북도 연령대별 여성 인구(2012년 1월 기준)	3
<표 II-3> 시도별 2040 여성 인구(2012년 1월 기준)	4
<표 II-4> 시군별 2040 여성 인구(2012년 1월 기준)	5
<표 II-5> 경북 2040 여성 경제활동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7
<표 II-6> 경북 시군별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 현황(2012년 1/4분기 기준)	9
<표 II-7> 전국 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2011년)	11
<표 II-8> 전국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11
<표 II-9> 전국 근로자의 노동시간 및 임금 현황(2011년)	13
<표 II-10> 전국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14
<표 II-11> 경북 시군별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2012년)	15
<표 II-12> 합계 출산율의 변화	17
<표 II-13> 경북 시군별 합계 출산율의 변화	19
<표 II-14>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2011년)	20
<표 II-15> 경북 시군별 0-5세 보육율(2012년 1월 기준)	21
<표 II-16> 경북의 보육시설 수(2012. 1. 기준)	22
<표 II-17>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 가해자 유형(2011년)	25
<표 II-18> 전국 성폭력범죄 접수 처분현황	26
<표 II-19> 경북 시군별 병·의원 및 산부인과 현황(2012년 10월 29일 기준)	28
<표 II-20> 경북 시군별 여성문화활동 시설 현황(2012년)	30
<표 II-21> 「부산여성 1040 프로젝트」 교육과정	32
<표 III-1> 조사 내용	37
<표 III-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0

<표 III-3> 취업 여부	41
<표 III-4> 취업 여부(변인별)	42
<표 III-5>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43
<표 III-6> 연령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44
<표 III-7> 학력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45
<표 III-8> 월평균 소득에 따른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46
<표 III-9>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	47
<표 III-10> 월평균 가구소득별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	48
<표 III-11>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49
<표 III-12> 권역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50
<표 III-13> 월평균 가구소득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51
<표 III-14> 과거 취업 경험	52
<표 III-15> 향후 취업 희망 여부	52
<표 III-16> 권역별 희망하는 취업 형태	53
<표 III-17> 연령별 희망하는 취업 형태	53
<표 III-18> 학력별 희망하는 취업 형태	54
<표 III-19>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55
<표 III-20> 연령별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57
<표 III-21> 학력별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58
<표 III-22>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59
<표 III-23>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60
<표 III-24>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61
<표 III-25> 연령대별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62
<표 III-26> 희망하는 취업 분야	63
<표 III-27> 연령별 희망하는 취업 분야	64
<표 III-28> 학력별 희망하는 취업분야	65
<표 III-29> 취업 시 가장 충족되어야 할 사항	66

<표 III-30>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67
<표 III-31>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68
<표 III-3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69
<표 III-33> 최근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70
<표 III-34> 권역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71
<표 III-35> 월평균 가구소득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72
<표 III-36>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73
<표 III-37> 지역문화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	74
<표 III-38> 여성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75
<표 III-39> 혼인상태별 여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76
<표 III-40> 평소 가장 받고 싶었던 평생교육프로그램	77
<표 III-41> 여성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	78
<표 III-42> 가장 필요한 보육지원제도(1순위)	80
<표 III-43> 가장 필요한 보육지원제도(2순위)	81
<표 III-44> 향후 사교육비 지출 방향	81
<표 III-45>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계재정 운영 방향	82
<표 III-46> 가구소득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계재정 운영 방향	84
<표 III-47>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분야	85
<표 III-48>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분야	87
<표 III-49>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88
<표 III-50> 경상북도 여성 취업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89
<표 III-51> 학력별 경상북도 여성 취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91
<표 III-52> 혼인상태별 경상북도 여성 취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92
<표 V-1> 정책적 요구 및 접근	116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령별 여성비율(2012. 1. 기준)	3
<그림 II-2> 취업율 추이(전국)	7
<그림 II-3> 고용률 추이(전국)	8
<그림 II-4>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12
<그림 II-5> 합계출산율의 변화	17
<그림 III-1> 취업 여부	41
<그림 III-2>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43
<그림 III-3>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	47
<그림 III-4>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49
<그림 III-5>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55
<그림 III-6>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59
<그림 III-7>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60
<그림 III-8>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61
<그림 III-9> 희망하는 취업 분야	63
<그림 III-10> 취업 시 가장 충족되어야 할 사항	66
<그림 III-11>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67
<그림 III-1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68
<그림 III-13>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69
<그림 III-14> 최근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70
<그림 III-15>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73
<그림 III-16> 지역 문화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	74
<그림 III-17> 여성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75

<그림 Ⅲ-18> 평소 가장 받고 싶었던 평생교육프로그램	77
<그림 Ⅲ-19> 여성의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	78
<그림 Ⅲ-20> 향후 사교육비 지출 방향	82
<그림 Ⅲ-21>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계재정 운영 방향	83
<그림 Ⅲ-22>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분야	85
<그림 Ⅲ-23>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88
<그림 Ⅲ-25> 경상북도 여성 취업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90
<그림 V-1> 체감형 정책수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정	115
<그림 V-2> 체감형 정책 사례	117

I

•

서론

I. 서론

1. 연구 목적

- 우리사회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임. 여성들의 생애전망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이전 세대 여성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음. 이는 경제적인 위기상황과 맞물려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었으며, 또한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됨.
- 또한 가족구조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즉,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구, 비혼 1인 단독 여성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외 다문화가정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우리사회의 변화들 즉 저출산 고령화, 1-2 가구의 증가 및 가족유형의 변화, 새로운 정책 요구 계층의 등장(2030여성, 다양한 여성계층, 젠더정책의 파트너로서 남성) 등은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
-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자녀양육, 노인돌봄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부각시켰으며, 맞벌이 가족, 다문화가족 및 분거가족의 증가 등 한국 가족

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뿐만 아니라 고령여성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돌봄서비스 증가, 보건 및 의료서비스,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해 향후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적 제고 등 및 장시간 근로관행 및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개선, 일 가정 양립기반 구축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임.

○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소득증대 및 노동시간 감소로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농어업 생산 지역이 많은 지역환경 특성상 문화적 여가이용에 있어 접근성의 어려움,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편견 및 차별문제 등이 잔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그리고 문화부문 여성일자리 문제, 문화적 포용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사료됨.

○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평등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여성의 낮은 사회 및 경제활동, 의사결정직의 낮은 여성참여, 취약한 여성을 위한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장애인 등 취

약계층 여성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흡, 소득양극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여성 확대 등의 다양한 여성관련 문제가 존재함.

- 이처럼 사회적으로 정책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지역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조직하면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다양성을 부각시키고 그러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현실적 욕구들과 정책적 개입의 지점들을 발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결혼-출산 등 중요한 생애사적 사건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전략과 선택을 하고 있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애전망과 삶의 현실적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정책 욕구를 가시화시켜 지역여성정책 개발의 현실적 기반으로 삼고자 함.
- 또한 경상북도 여성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를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좀 더 경상북도 여성의 현실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20-40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북도 여성과 가족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향후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

2. 연구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 현황 및 집단별 통계 조사를 제시함.
- 가족·문화, 취업, 복지, 건강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생활밀착형·맞춤형 정책대안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함.
-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의 20대~ 40대 여성에 한정함.

3.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011년도에 시행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T.O.P. 경북 프로젝트-정책수요조사’의 연장선상임.

지난해 연구는 경북지역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원래 의도된 것과는 달리 응답자 분석 결과 주로 30대와 40대 여성 위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20대 응답자가 부족하였음. 또한 14개 시군에서만 실시되어 경북지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그리하여 금년도 조사에서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질이 검증된 조사요원과 조사방법을 이용,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접근방법은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동시에 지향함.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은 기존 통계자료 재설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으로 이루어짐.
- 설문조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지역, 연령별 인구비례에 맞추어 이단층무작위표본추출(Two-stage Random Sampling)로 표본선정이 이루어졌음. 계층, 직업, 가족형태 등을 최대한 다양화하여 현실적인 정책 욕구를 찾는 데 주력하였음.
- 문헌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의 특징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검토함. 또한 각종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학술지논문 등을 고찰하여 조사항목 및 질문지 개발, 자료 분석 및 해석, 정책 제언 등 조사의 전체 수행과정에 활용함.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에서는 여성경제활동 관련, 출산 및 자녀양육,

안전 및 인권,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등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2) 연구 구성

- 본 연구의 구성은 제 I 장에서는 2040 경북여성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에 대한 필요성 및 목적, 내용 및 범위, 방법 및 기대효과를 제시함.
- 제 II 장에서는 경상북도 20~40대 여성을 둘러싼 사회변화 즉 인구현황, 경제활동 현황, 출산 및 육아 관련 현황, 안전 및 인권 관련 현황, 문화활동 현황 등을 제시함. 또한 국내외 생활체감형 정책 사례를 검토분석함.
- 제 III 장과 제 IV 장에서는 사회·문화·경제적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40대 여성의 정책인식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해 가구 및 주거생활, 취업상태 및 구직, 결혼 및 가족생활, 출산 및 자녀 양육, 일상생활 및 안전, 문화생활 및 향상 증진방안, 지자체 정책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제시함.
- 제 V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북지역 20~40대 여성들의 생활여건 및 현황에 따른 정책적 욕구를 읽어내어 좀 더 여성생활에 밀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4. 연구 한계

- 본 연구는 2011년도에 시행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T.O.P. 경북 프로젝트-정책수요조사’에서 조사된 표본수(14개시군 대상)가 경북지역 20~40대 여성들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하에 전체 23개 시군에 걸쳐 표본을 추출하였음. 이를 통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형태여서, 여성들의 현실과 욕구가 단순화된 문항으로만 표현되기에, 여성들간의 다양한 내부차이를 이해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따름.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여 보다 구분화된 표본들 즉 훨씬 더 초점화된 표적 집단의 사례들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Ⅱ



경상북도 2040 여성현황

II. 경상북도 2040 여성 현황

1. 경상북도 2040 여성 현황

1) 경상북도 2040 여성 인구

○ 경상북도 여성인구는 1,342,455명으로 전국 여성의 5.3%를 차지하며, 경상북도의 남녀 구성비 중 여성은 49.8%임.

○ 경상북도 여성 중 20~49세 여성은 539,224명으로 전체의 40.2%(20대 11.0%, 30대 13.7%, 40대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비율인 45.7%보다 5.5%p 낮음. 경상북도는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40대 이하 여성비율은 낮고 50대 이상의 여성비율은 높은 편임.

<표 II-1> 경상북도 여성 인구(2012년 1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국	25,414,026	100.0	25,336,811	100.0
경북	1,354,649	5.3	1,342,455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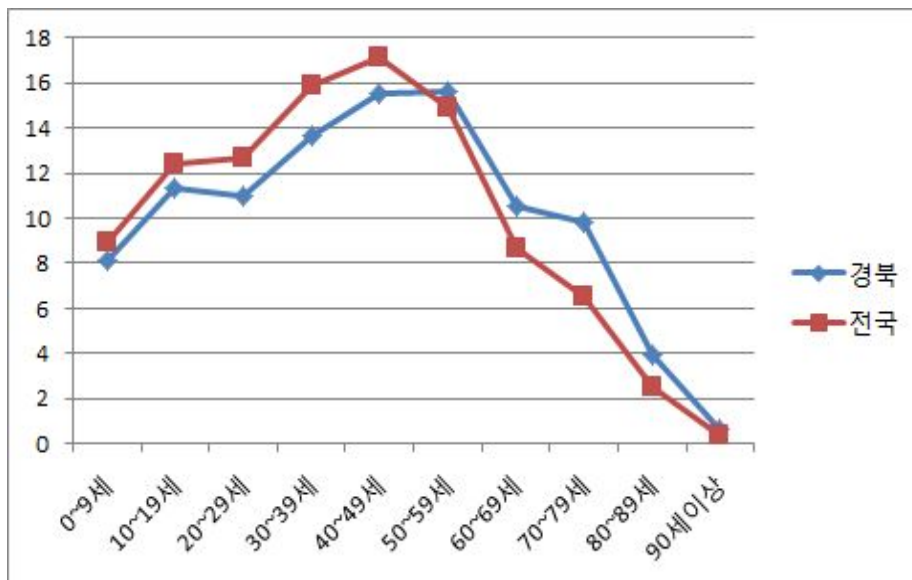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표 II-2> 경상북도 연령대별 여성 인구(2012년 1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총인구수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이상
전국 (A)	25,336,811 (100.0)	2,254,649 (8.9)	3,152,089 (12.4)	3,216,987 (12.7)	4,043,995 (15.9)	4,328,144 (17.1)	3,768,805 (14.9)	2,198,927 (8.7)	1,633,499 (6.5)	638,038 (2.5)	101,678 (0.4)
경북 (B)	1,342,455 (100.0)	108,812 (8.1)	151,988 (11.3)	147,508 (11.0)	182,988 (13.7)	208,728 (15.5)	209,704 (15.6)	141,192 (10.5)	131,190 (9.8)	52,461 (3.9)	7,884 (0.6)
경북 비율 (B/A)	5.3	4.8	4.8	4.6	4.5	4.8	5.6	6.4	8.0	8.2	7.8

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그림 II-1> 연령별 여성비율(2012. 1. 기준)

2) 시도별 2040 여성 인구

- 시도별로 보면 20~49세 여성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2,893,772명이며, 다음으로 서울시(2,538,716명)가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인구대비 20~49세 여성비율로 보면 서울(49.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와 울산(48.5%), 인천(48.3%)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에 비해 경북(40.2%)은 전남(36.4%), 전북(39.7%)에 이어 세번째로 적은 여성이 적은 지자체에 속함.

<표 II-3> 시도별 2040 여성 인구(2012년 1월 기준)

구분	총 여성 인구	2040 여성 인구	2040 여성 인구 비율
전국	25,336,811	11,589,126	45.7
서울	5,176,567	2,538,716	49.0
부산	1,787,458	792,163	44.3
대구	1,256,489	577,110	45.9
인천	1,391,932	671,953	48.3
광주	738,784	345,324	46.7
대전	757,394	360,861	47.6
울산	552,155	267,635	48.5
경기	5,928,150	2,873,772	48.5
강원	762,617	306,871	40.2
충북	774,896	330,123	42.6
충남	1,039,117	427,715	41.2
전북	939,716	372,938	39.7
전남	956,701	348,230	36.4
경북	1,342,455	539,224	40.2
경남	1,644,251	713,804	43.4
제주	288,129	122,687	42.6

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3) 시군별 2040 여성 인구

○ 경상북도 시군별 여성인구를 보면, 20~49세 여성 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시로 111,93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미시(106,654명), 경산시(120,563명) 순으로 나타남.

<표 II-4> 시군별 2040 여성 인구(2012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총 여성 인구	2040 여성 인구	2040 여성 인구 비율
전국	25,336,811	11,589,126	45.7
경상북도	1,342,455	539,224	40.2
포항시	254,562	111,938	44.0
경주시	132,595	52,511	39.6
김천시	68,308	25,404	37.2
안동시	85,134	32,031	37.6
구미시	203,338	106,654	52.5
영주시	57,184	20,173	35.3
영천시	51,353	17,756	34.6
상주시	53,068	16,486	31.1
문경시	38,817	12,699	32.7
경산시	120,564	54,180	44.9
군위군	12,064	3,016	25.0
의성군	29,376	7,264	24.7
청송군	13,415	3,640	27.1
영양군	9,239	2,425	26.2
영덕군	21,386	5,743	26.9
청도군	22,728	6,299	27.7
고령군	17,311	5,766	33.3
성주군	22,173	6,933	31.3
칠곡군	57,484	26,807	46.6
예천군	23,633	6,360	26.9
봉화군	17,120	4,721	27.6
울진군	26,524	8,518	32.1
울릉군	5,079	1,900	37.4

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총 인구대비 20~49세 여성비율은 구미시가 여성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5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칠곡군(46.6%), 포항시(44.0%) 순임. 반면, 20~49세 여성비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의성군(24.7%)으로 나타남. 공업 등 산업기반체제를 갖춘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의 여성이 많은 반면 산업기반이 약한 농어촌은 젊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2. 2040 여성의 경제활동

1) 경상북도 여성경제활동 현황

- 2011년 4/4분기 경상북도 15~49세 여성 경제활동 인구수는 313천명으로 전체 여성경제활동인구의 57.0%에 해당함. 전국(68.8%)보다 11.9%p 낮은 수치임.
- 경상북도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비율은 40~49세(25.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9세(16.4%), 15~29세(15.3%)로 나타남. 전국에 비해 40대는 -1.3%p, 30대는 -4.8%p, 15~29세는 -5.6%p 낮은 비율을 보임. 동일 연령대 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이 모두 20%를 초과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임.

<표 II-5> 경북 2040 여성 경제활동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여성 경제활동 인구		15~29세		30~39세		40~49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국	10,221	100.0	2,141	20.9	2,162	21.2	2,740	26.8
경북	550	100.0	84	15.3	90	16.4	139	25.3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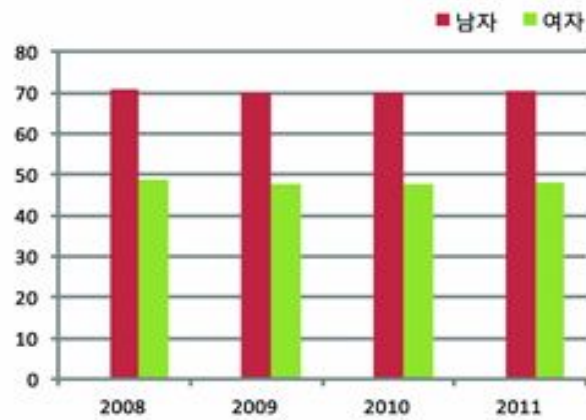
○ 2011년 전국 여성 취업자 현황을 보면, 40대는 2,702천명, 50대는 2,051, 60대는 1,191 천명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나, 20대는 1,918천명으로 전년 대비 -1.4%p, 30대는 2,100천명으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음(통계청, 2011년 여성고용동향). 20~30대 여성고용이 감소하고 40대 이상 여성고용이 증가하여 취업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전국 고용율은 여성의 경우 48.1%, 남성의 경우 70.5%로 여전히 남녀 격차가 22.4%p로 크게 나타남.



<그림 II-2> 취업율 추이(전국)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고용동향(2011)



<그림 II-3> 고용률 추이(전국)

- 2012년 1/4분기 기준으로 경상북도 시군별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1.9%로 절반 이상의 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4/4분기에 비해 -5.1%p 감소하였음. 경제활동 참가율

이 높은 시군은 의성군(63.4%), 청도군(61.9%), 청송군(60.6%) 순인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시군은 영주시(43.5%), 포항시(44.4%), 문경시(44.6%)로 나타남. 농촌지역의 여성경제활동 비율이 높고 도시지역이 낮은 이유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수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통계상 20~49세 여성만의 경제활동 비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젊은 층 여성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한편 2011년도 본원 조사에 의하면, 경북지역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마련(36.3%)과 생계책임(22.9%), 경제력 확보(22.9%)가 주를 이루고 있음(이경숙, 김수연, 2011). 또한 직장생활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가족이 아플 때 보살피기 어렵고,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음을 들었음.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가장 크고, 불규칙적이거나 늦은 퇴근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2) 취업여성의 고용형태

- 시도별 분리통계의 한계가 있는 관계로 경상북도의 여성경제활동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여성의 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는 상용(50.3%), 임시(39.0), 일용(10.7%)의 순이며, 남성에 비해 상용의 비율이 낮고, 임시 및 일용으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이 높음. 따라서 여성의 고용 상 지위가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II-6> 경북 시군별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 현황(2012년 1/4분기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경상북도	1,127.7	555.9	543.6	51.9
포항시	210.2	93.3	91.9	44.4
경주시	111.8	56.1	54.6	50.2
김천시	58.4	30.6	29.7	52.4
안동시	71.9	34.8	34.0	48.4
구미시	161.5	83.4	79.6	51.6
영주시	48.6	21.1	20.8	43.5
영천시	44.4	22.9	22.5	51.5
상주시	46.5	22.8	22.6	48.9
문경시	32.5	14.5	14.3	44.6
경산시	106.9	49.2	48.0	46.0
군위군	10.4	6.2	6.1	59.5
의성군	26.0	16.5	16.3	63.4
청송군	11.7	7.1	7.1	60.6
영양군	8.1	4.3	4.3	53.5
영덕군	18.3	8.5	8.4	46.8
청도군	19.8	12.2	12.2	61.9
고령군	14.8	7.3	7.2	49.5
성주군	18.4	11.1	11.0	60.1
칠곡군	45.9	22.8	22.1	49.7
예천군	20.7	9.9	9.9	47.9
봉화군	14.9	7.9	7.7	53.0
울진군	21.8	11.0	10.9	50.4
울릉군	4.2	2.4	2.4	56.5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 휴직자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

<표 II-7> 전국 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2011년)

(단위: 년, 천명, %)

구 분	계	상용	임시	일용
남성	9,970 (100.0)	6,922 (69.4)	2,095 (21.0)	953 (9.6)
여성	7,428 (100.0)	3,739 (50.3)	2,895 (39.0)	793 (1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취업여성의 임금 및 노동시간 현황

- 성별 임금근로자수는 300만원 미만 구간에는 여성근로자수가, 3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남성근로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8> 전국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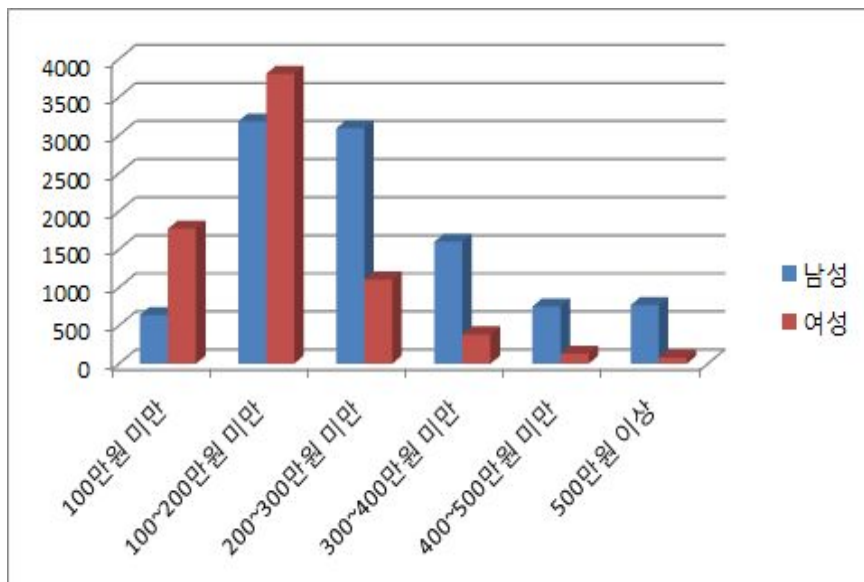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성별	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남성	10,036 (100.0)	641 (6.5)	3,180 (31.7)	3,091 (30.8)	1,602 (15.9)	752 (7.5)	770 (7.7)
여성	7,277 (100.0)	1,773 (24.3)	3,806 (52.3)	1,104 (15.2)	385 (5.3)	128 (1.8)	81 (1.1)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여성의 임금수준을 보면, 100~200만원 미만이 52.3%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으로 24.3%, 200~300만원 미만

이 15.2%를 차지하여 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여성이 91.8%를 차지하고 있음. 남성의 경우 3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68.9%만이 해당됨으로써 남녀 임금지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300만원 이상 임금구간에서도 남성의 임금수준이 여성의 임금보다 3~7배로 높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임금에서의 성차별이 있을 것으로 유추됨.



<그림 II-4>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현황을 보면,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총근로일수(22.6일), 정상근로시간(178.8일), 초과근로시간(9시간)은 각각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평균 월급여액에 있어서는 정규직 여성의 급여액(1,819천원)은 남성의 급여액(2,677천원)에 비해 67.9%수준의 상당히 낮은 수치

를 보이고 있음.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 특별급여, 시간당 정액급여 영역 모두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남. 즉,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에 대한 근로임금 불평등을 시사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에 있어서도 여성의 총 근로일수(19.7일)은 남성에 비해 1.2일 많은데 비해 월 급여액은 남성의 65.9%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규직에서 나타난 격차의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II-9〉 전국 근로자의 노동시간 및 임금 현황(2011년)

(단위: 일, 시간, 천원)

고용형태	성별	2011								
		총근로 일수 (일)	총근로 시간 (시간)	정상근 로시간 (시간)	초과근 로시간 (시간)	월 급여액 (천원)	정액 급여 (천원)	초과 급여 (천원)	연간특 별급여 (천원)	시간당 정액급 여(원)
정규직 근로자	계	22.5	190.7	177.3	13.4	2,385	2,225	160	5,152	12,863
	남	22.5	192.2	176.5	15.6	2,677	2,481	196	6,318	14,387
	여	22.6	187.8	178.8	9	1,819	1,728	91	2,889	9,905
비정규직 근로자	계	19.1	152.2	147	5.2	1,282	1,233	49	328	9,177
	남	18.5	157.4	150.2	7.2	1,548	1,477	71	441	10,866
	여	19.7	147.1	143.9	3.2	1,020	994	27	217	7,515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통계

4)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 취업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산전후 휴가자수에 비해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64.4%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남성육아휴직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육아에서의 아버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표 II-10〉 전국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2001	2005	2010	2011
산전후 휴가자 수		2	41,104	75,742	90,290
육아 휴직자 수	계	25	10,700	41,733	58,137
	여성근로자	23	10,492	40,914	56,735
	남성근로자	2	208	819	1,402

출처: 고용노동부(고용보험DB자료)

* 산전후휴가자 수는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로 '01.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의미

5) 시군 일자리지원 서비스 체계 현황

- 경상북도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서비스 지원체계는 경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로 구성되

어 있음. 경북여성새일지원본부는 도 단위 여성일자지 지원사업 수행 및 시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없는 시군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여 각 시군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기업인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

○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6개 시군에 설치되어 독립적인 여성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인력개발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포항, 구미, 김천, 칠곡의 4개 시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연계, 직업의식교육, 컴퓨터 등 기초직업 지식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II-11> 경북 시군별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2012년)

취업지원체계	대상 지역	주요 서비스
경북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경상북도	○ 도내 시군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 ○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시군에 취업설계사 파견 ○ 수요-공급 네트워크 등 일자리지원 허브 역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칠곡, 경산	○ 맞춤형 직업훈련 ○ 주부인턴제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일가정 양립 지원 ○ 집단상담
여성인력개발센터	포항, 구미, 칠곡, 김천	○ 직업능력교육 ○ 취창업지원 ○ 사회문화교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집단상담

6) 여성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이 있음.

□ 근로기준법(2012. 2. 1. 개정) : 근로자의 근로기준을 정한 법률로 남녀의 균등한 근로조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2. 2. 1. 개정)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조치하도록 함. 또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10. 6. 4. 타법 개정)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통해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 국가와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3. 출산 및 육아 현황

1) 합계출산률

○ 경상북도의 합계 출산률은 점차 낮아져 2005년 1.1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회복되어 2011년은 2001년 수준보다 높은 1.43명으로 기록되었음. 경북의 출산율은 전국 출산율보다 높으며, 이는 가족중심의 전통적 사회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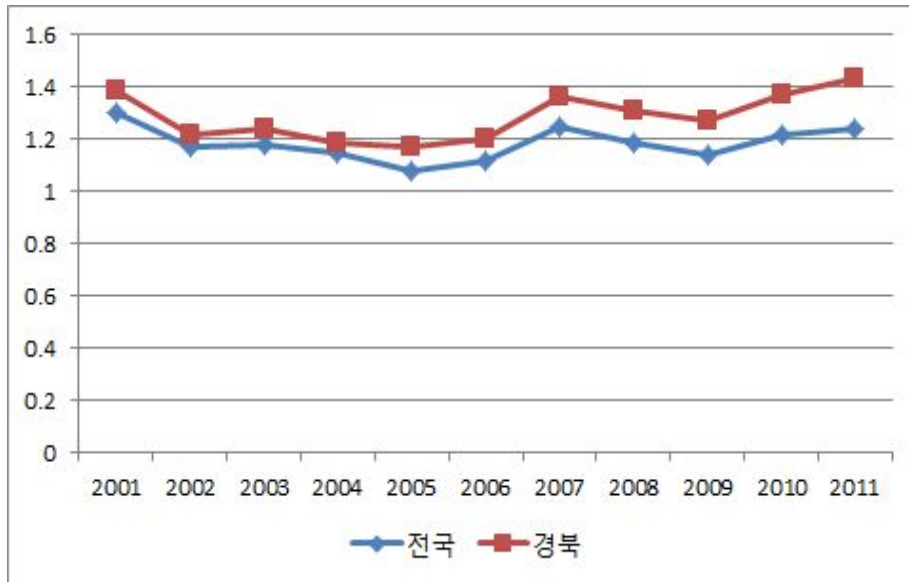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 출산율의 증가를 위한 여러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출산 적령기 여성의 요구에 맞는 출산정책이 요구되는 바임.

<표 II-12> 합계 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4	1.22	1.24
경북	1.39	1.22	1.24	1.19	1.17	1.20	1.36	1.31	1.27	1.37	1.4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그림 II-5> 합계출산율의 변화

- 시군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1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시군은 칠곡군(2,016명)인 반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시군은 울릉군(0.996명)이고 다음으로 청도군(1.133명)으로 기록됨. 울릉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젊은 출산가능 인구의 정주율이 낮을 뿐 아니라 군내로 유입되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이고, 청도군은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출산율이 낮음. 반면 칠곡군은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인근의 구미시와 대구시에 생활 및 정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13> 경북 시군별 합계 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

시군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상북도	1.36	1.31	1.27	1.37	1.434
포항시	1.251	1.236	1.208	1.33	1.359
경주시	1.299	1.236	1.194	1.264	1.244
김천시	1.472	1.49	1.386	1.398	1.384
안동시	1.415	1.356	1.413	1.528	1.584
구미시	1.414	1.324	1.217	1.334	1.418
영주시	1.233	1.241	1.24	1.332	1.368
영천시	1.233	1.291	1.259	1.468	1.454
상주시	1.309	1.344	1.396	1.41	1.361
문경시	1.306	1.259	1.326	1.411	1.591
경산시	1.427	1.314	1.33	1.342	1.439
군위군	1.623	1.648	1.325	1.201	1.548
의성군	1.452	1.419	1.334	1.45	1.446
청송군	1.566	1.432	1.251	1.169	1.485
영양군	1.413	1.426	1.083	1.197	1.205
영덕군	1.303	1.134	1.217	1.431	1.272
청도군	1.228	0.902	1.003	0.999	1.133
고령군	1.345	1.369	1.27	1.364	1.352
성주군	1.239	1.297	1.291	1.26	1.465
칠곡군	1.601	1.573	1.429	1.828	2.016
예천군	1.272	1.156	1.12	1.307	1.49
봉화군	1.588	1.631	1.562	1.932	1.687
울진군	1.377	1.259	1.448	1.313	1.39
울릉군	1.405	1.289	1.02	0.796	0.996

출처: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 경북지역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124.5) 구간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29세(101.6)으로 나타나며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출

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25~34세 구간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출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이 시기에는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여성이슈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표 II-14>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2011년)

(단위: 명, ‰)

구분	여성의 연령별출산율:							
	합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1,244	1.8	16.4	78.4	114.4	35.4	4.6	0.2
경북	1,434	2.5	23.8	101.6	124.5	33.0	4.2	0.1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연령별 출산율 : 모의 연령별 당해연도 출생아수를 당해 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 분비로 나타낸 것(연령별 출산율 = 해당연령의 출생아수 ÷ 해당연령 여자수 × 1000)

2) 자녀보육현황

○ 보육시설에 등록된 0~5세 아동의 보육율은 전국 48.7%, 경상북도 53.4%로 경상북도가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군의 경우, 칠곡군(63.1%)이 가장 높은 보육율을 보인 반면 울릉군(29.5%)이 가장 낮은 보육율을 보이고 있음. 울릉군을 제외하면 군위군(34.5%)의 보육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군위군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보육시설(4개소)도 울릉군(2개소) 다음으로 적어, 아동수가 비슷한 영양군에 비해 열악한 보육수준을 보이고 있음.

- 경상북도의 보육시설수는 2012년 1월 현재 2,171개소로 가정 어린이집(1,016개소)이 절반 정도(46.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개인 어린이집(893개소)이 많음. 국공립 어린이집은 119개소로 5.5%에 불과함.

<표 II-15> 경북 시군별 0-5세 보육율(2012년 1월 기준)

(단위 : 명, 세대, %)

구분	전체 아동수	보육시설 아동수	보육율
전국	2,776,249	1,352,593	48.7
경상북도	136,301	72,746	53.4
포항시	27,116	16,192	59.7
경주시	12,406	7,433	59.9
김천시	6,291	3,418	54.3
안동시	8,691	3,740	43.0
구미시	28,939	13,678	47.3
영주시	4,776	2,550	53.4
영천시	4,145	2,137	51.6
상주시	3,973	1,498	37.7
문경시	2,999	1,397	46.6
경산시	14,194	8,269	58.3
군위군	585	202	34.5
의성군	1,469	744	50.6
청송군	762	363	47.6
영양군	561	221	39.4
영덕군	1,275	719	56.4
청도군	1,201	604	50.3
고령군	1,514	814	53.8
성주군	1,451	708	48.8
칠곡군	8,321	5,253	63.1
예천군	1,659	908	54.7
봉화군	1,296	482	37.2
울진군	2,338	1,316	56.3
울릉군	339	100	29.5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표 II-16> 경북의 보육시설 수(2012. 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외	민간 개인			
소계	2,171	119	85	932	39	893	0	1,016	19
포항시	613	13	11	194	1	193	0	389	6
경주시	226	8	7	91	1	90	0	119	1
김천시	127	5	9	43	1	42	0	69	1
안동시	94	10	7	53	2	51	0	23	1
구미시	417	7	12	199	4	195	0	197	2
영주시	44	5	3	32	8	24	0	4	0
영천시	50	7	5	25	0	25	0	11	2
상주시	46	2	2	32	1	31	0	10	0
문경시	39	4	2	24	3	21	0	8	1
경산시	214	8	8	105	4	101	0	92	1
군위군	4	0	2	2	0	2	0	0	0
의성군	13	3	4	6	3	3	0	0	0
청송군	10	3	1	4	2	2	0	1	1
영양군	5	3	0	2	1	1	0	0	0
영덕군	15	5	0	9	0	9	0	1	0
청도군	16	4	3	5	0	5	0	4	0
고령군	18	5	2	9	0	9	0	1	1
성주군	21	5	0	10	0	10	0	6	0
칠곡군	144	5	5	64	3	61	0	69	1
예천군	18	4	1	9	2	7	0	4	0
봉화군	10	3	1	2	1	1	0	4	0
울진군	25	9	0	11	1	10	0	4	1
울릉군	2	1	0	1	1	0	0	0	0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4. 여성의 안전 및 인권보호 현황

1) 여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규정한 법

○ 여성의 안전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 및 특례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 및 특례법,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1995. 12. 30. 제정) :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건강가정기본법(2004. 2. 9. 제정) :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출산양육의 지원, 직장가정의 양립,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자녀양육지원, 가족의 건강, 가족부양의 사회적 지원, 가정생활문화지원,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3. 제정)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 7. 1. 제정) :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

정을 위한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제정)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제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신상정보 공개, 범죄자 등록 등이 포함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제정)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원,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시행, 전면개정) :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 범죄 현황 및 처벌 건수

- 2011년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실적에 의하면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는 126,240건이며 그중 가정폭력 상담은 43.7%를 차지하고 있음.
- 가해자는 배우자가 82.4%로 압도적으로 높음.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연령대는 30대(30.1%)와 40대(32.4%)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입소시 동반한 자녀는 3세~12세(66.5%) 구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상담통계에서도 2011년 총 상담건수 중 가정폭력건수가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II-17〉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 가해자 유형(2011년)

(단위: 명, %)

구분	계	배우자	과거 배우자	직 계 존 속	직 계 비 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기 타
상담수	98,228	80,970	2,890	6,067	2,105	870	985	4,341
비율	100.0	82.4	2.9	6.2	2.1	0.9	1.0	4.5

출처: 여성가족부, 2011년도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2012. 6)

※ 피해자 1인에 대한 다수 가해자 모두 표기

3) 성폭력 범죄 현황 및 처벌 건수

- 전국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무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성폭력 범죄 접수건수는 2012년 8월 현재 14,662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성폭력 사건 중 기소율은 2002년 46.5%였지만 그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여 2012년 8월 말 현재 41.0%로 낮아졌음. 기소된 사건 중 구속된 행위자 비율도 2002년 71.5%에서 2012년 8월말 25.4%로 급감했음.

-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친고죄 폐지를 통해 행위자 처벌이 강화되어야만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표 II-18〉 전국 성폭력범죄 접수 처분현황

(단위: 명)

연도	접수인원		기소인원(%)		구속인원(%)	
	전체	13세미만대상	전체	13세미만대상	전체	13세 미만대상
2002	10,800	630	5,024(46.5)	445(70.6)	3,590(71.5)	364(81.8)
2003	12,274	754	5,745(46.8)	528(69.4)	3,868(67.3)	417(79.0)
2004	13,714	735	5,714(41.7)	514(69.9)	3,491(61.1)	400(77.8)
2005	13,274	844	5,661(42.6)	507(60.1)	3,037(53.6)	366(72.2)
2006	15,642	844	6,863(43.9)	538(63.7)	3,103(45.2)	337(62.6)
2007	15,826	754	6,841(43.2)	489(64.9)	2,591(37.9)	286(58.5)
2008	16,958	971	7,323(43.2)	609(62.7)	2,861(39.1)	330(54.2)
2009	18,283	874	7,470(40.9)	494(56.5)	2,615(35.0)	289(58.5)
2010	21,116	1,004	8,863(42.0)	582(58.0)	2,920(32.9)	358(61.5)
2011	21,920	902	9,432(43.0)	488(54.1)	2,639(28.0)	262(53.7)
2012 (1-8월)	14,662	615	6,011(41.0)	297(48.3)	1,527(25.4)	162(54.5)

출처: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정조사 관련 보도자료(2012. 10. 10)

4) 의료보건 체계

- 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과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기관임. 그

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경우 농어촌 지역 의료체제가 양호하지는 않은 편임.

- 특히 여성을 위한 산부인과 의원은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는 여성에게는 산부인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진료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농어촌의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민간 산부인과 운영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산부인과 의원의 설치가 필요함.

<표 II-19> 경북 시군별 병·의원 및 산부인과 현황(2012년 10월 29일 기준)

(단위 : 개, 소)

구분	병원(의료원)	의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산부인과의원
전 국	3,246	55,827	3,473	1,475
경 북	201	2,300	557	60
시 단 위	154	1,919	297	57
군 단 위	47	381	260	3
포 향 시	38	476	39	6
경 주 시	30	216	28	5
김 천 시	8	103	33	5
안 동 시	16	145	40	4
구 미 시	17	374	22	17
영 주 시	9	104	24	4
영 천 시	8	106	25	2
상 주 시	4	89	44	3
문 경 시	4	75	23	4
경 산 시	20	231	19	7
군 위 군	1	13	18	-
의 성 군	10	38	39	-
청 송 군	3	17	19	-
영 양 군	1	8	14	-
영 덕 군	3	33	22	-
청 도 군	7	39	19	-
고 령 군	2	23	18	-
성 주 군	3	37	21	-
칠 곡 군	6	85	18	3
예 천 군	2	32	27	-
봉 화 군	2	16	17	-
울 진 군	5	38	22	-
울 릉 군	2	2	6	3

자료 : 국민건강정보포털-병·의원찾기

5. 여성을 위한 문화활동 현황

- 여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시군의 대표적 시설은 여성문화회관임. 최근 시군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어 명칭변경을 한 시군이 늘어나고 있음.
- 시군 여성 문화활동은 전통적인 여성들의 영역이었던 의, 식, 주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교육, 영어 등 어학교육, 컴퓨터 교육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인문학 열풍에 힘입어 각 지역의 역사와 접목한 인문학교육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농어촌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여성회관이 여성의 문화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경상북도는 시군을 통합할 수 있는 도 단위 여성회관이 부재하여 도 단위 여성행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청의 신도시 이전과 함께 가칭 ‘경북여성플라자’건립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경북여성플라자’가 건립되면 도 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가 갖추어지고 여성관련 행사 및 여성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2011년 본원 조사에 의하면, 지역의 문화시설 이용경험은 71.7%로 나타났으며,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부족이나 관심 프로그램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음. 따라서 정보제공의 방식을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표 II-20> 경북 시군별 여성문화활동 시설 현황(2012년)

지역	기관명	주요 서비스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 여성사회교육, 야간강좌 운영 ○ 수영장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경주시	평생학습문화센터	○ 여성사회교육 전반 ○ 주말 및 야간강좌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김천시	종합사회복지관	○ 교육, 평생학습센터 운영 ○ 새일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위탁)
안동시	여성복지회관	○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회관 운영
구미시	평생교육원	○ 시민대상 일반교육과정으로 운영 ○ 여성대학, 여성자원봉사단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 여성교육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 여성교육전반 운영
상주시	여성회관	○ 여성교육전반 운영 ○ 야간강좌 운영
문경시	사회복지센터	○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시민대상 과정 운영 ○ 여성회관 및 여성교육 운영
경산시	여성회관	○ 여성대학, 여성합창단 등 운영 ○ 야간강좌 운영
군위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	○ 일반 군민 대상, 문화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활동 ○ 여성회관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 ○ 수영장 운영
의성군	없음	○ 노인여성복지과/ 여성담당에서 여성업무
청송군	없음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담당에서 여성업무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 일반 군민대상 ○ 여성회관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
영덕군	여성회관	○ 여성사회교육, 여성회관 운영
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여성사회교육, 여성회관 운영
고령군	없음	○ 주민생활지원과 / 여성가족담당에서 여성업무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 여성사회교육, 여성회관 운영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청소년육성 등 ○ 평생학습도시 지정 ○ 수영장 운영
예천군	여성회관	○ 여성사회교육, 여성회관 운영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 여성사회교육, 여성회관 운영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 여성사회교육, 여성회관 운영
울릉군	한마음회관	○ 일반 군민대상 ○ 여성사회교육

자료 : 각 시군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6. 생활체감형 정책 사례

1) 부산시 「부산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

- 부산시는 「부산시 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 추진계획(2006)」, 「부산발전 2020계획(여성분야)」,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2020년 부산발전에 핵심적인 주역이 될 수 있는 3,000명의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각 분야의 여성리더로 육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부산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함.
- 올해 6년째 접어드는 본 사업은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의 중심사업으로 발전하였고, 총 23기 과정, 1,739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음.
- 「부산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 사업의 구조는 여성발굴 → 육성 → 사회활동가/관리자 배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운영자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전체과정에 개입하여 지원하고 있음.
- 여성리더 육성과정은 초기에는 기본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2012년 현재는 기본과정, 여고생과정, 최고관리자과정의 3개 과정으로 집단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교육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12년 프로그램을 보면, 기본 과정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10~40대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여성리더 역할, 사명개발 프로젝트, 지역사회 활동과제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 등 총 100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임. 차세대 과정은 부산지역 여고생 80명을 대상으로 비전과 열정, 변화와 도전, 소통과 조화, 네트워킹 등 총 24시간 이수과정으로 기말고사 이후 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이 운영됨. 최고관리자 과정은 관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여성과 일, 경력개발, 조직개발, 셀프리더십, 지역사회개발 등 총 42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임.

<표 II - 21> 「부산여성 1040 프로젝트」 교육과정

(단위 : 명, 세대, %)

과정명	대상	교육기간	주요내용
기본 과정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	100시간	○ 여성리더 사명개발 ○ 지역사회 활동과 제 개발
차세대 과정	부산지역 여고생	24시간	○ 비전과 열정, 변화와 도전 ○ 소통과 조화, 네트워킹
최고관리자 과정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여성 80명	42시간	○ 경력개발, 셀프리더십 ○ 조직개발, 지역사회개발

출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

○ 본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분야별 심화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료자 DB수록 및 각종 위원회 및 전문분야에 추천하기도 함. 또한 수료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카페 및 블로그 활동도 지원하고 있음. 연말에는 수료자 연찬회를 열어 연간 활동보고회 기회를 갖고 있음.

○ 수료자 사회진출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료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여성단체(단체명 : 부산여성리더 1040)를 조직하여 부산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며, 회칙에 의한 회의 운영 및

지역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부산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는 부산지역 잠재여성인재 및 여성 리더를 발굴 육성하는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여성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결과 수료자 중 3명의 여성이 의원직(구의원)에 진출하여 성과를 얻었음.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체감 정책단」

- 「생활체감 정책단」은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만나는 일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지속적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
- 대상은 특정 연령대에 두고 있지 않으며 누구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참여방식은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음. 온라인으로는 블로그와 카페활동 등이 있고, 오프라인은 모임회나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음.
- 회원활동은 홈페이지 내 블로그를 통해 생활에서 체감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 나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제안된 정책의견들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피드백 하는 역할

을 하고 있음. 또 제안 내용들을 정책화하고 구체화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음.

○ 블로그 활동은 주제별 핵심 논의사항 제시 → 커뮤니티 글쓰기와 SNS 채널을 통한 다양한 의견 전개 → 제시된 새로운 정책제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우수 사례 선정 →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을 취함.

○ 2012년도 주제는 6가지로 ▲ 차별없는 사회, ▲ 청소년폭력, 여성의 안전 ▲ 여성일자리와 일·가족 양립, ▲ 육아, ▲ 나눔문화와 녹색 에너지,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생활체감정책단의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있음.

○ 온라인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매달 우수활동상 및 우수컨텐츠상을 수상하고 있음. 우수활동상은 생활체감정책단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오프라인 모임에서 활발한 제안과 토론 활동을 보인 회원에게 수여하며, 우수 콘텐츠상은 각 주제에 관련한 제안 및 오프라인 모임 후기를 카페에 가장 열심히 공감되는 글을 쓴 회원에게 주어지는 상임. 이 두 상 수상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Ⅲ



2040 경북여성 정책수요조사 결과 분석

III. 2040 경북여성 정책수요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사회·문화·경제적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40대 여성의 정책인식 및 문제점 진단, 수요조사를 하고자 함.
- 조사대상자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20대~40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의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들 중 ‘세대’ 요인을 제한하였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범주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였음.
- 본 조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지역, 연령별 인구비례에 맞추어 이단층무작위표본추출(Two-stage Random Sampling)로 표본선택이 이루어졌음. 계층, 직업, 가족형태 등을 최대한 다양화하여 현실적인 정책 욕구를 찾는 데 주력하였음.
- 표본오차 및 신뢰도
 - 본 수요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도 수준에 $\pm 4.4\%$ 의 표본오차를 가짐.

2) 조사 내용

<표 III-1> 조사 내용

내 용	문 항
응답자 일반사항	• 연령 • 학력 • 혼인상태 • 가족형태 • 소득 • 거주지역(기간)
경제활동 관련	• 취업 여부 • 취업한 경우, 고용형태, 근무형태,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 •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구직의향, 희망 취업형태 및 소득, 구직시 고려점 및 어려운 점 • 자녀 양육 지원 의견 • 직장 근로환경의 개선 사항 • 경제활동 지원 정책 • 일과 가정 양립에 필요한 정책 • 취업을 원할 경우 일자리 분야 • 취업 원할 경우 충족 조건
출산 및 자녀 양육	• 여성 출산을 위한 필요 조건 • 보육지원 제도 • 자녀 사교육비 지출 방향 • 사교육비 가계재정 운영 방향
안전 및 인권	• 가정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주거지역 안전과 안전증진 방안
정책적 지원	• 경북 여성정책 수립 시 중요 분야 • 경북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필요 조건 • 경북 여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 경북 여성정책관련 건의사항
문화생활 및 향상 증진방안	• 문화생활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문화시설 이용시 어려움 • 문화생활 지원 정책 • 교육받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3)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 조사 기간 : 2012. 09. 17 - 2012. 09. 23.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개별방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조사 대상 : 경상북도(23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20~40대 여성 509여명
- 분석 방법 : Coding → Editing 과정→ SPSS Ver. 12.0(SPSS Institute Inc., 2008), EXCEL(Microsoft Inc., 2007)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 독립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을 활용함.

2.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I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3개 시·군을 북부자원권, 중서부내륙권, 남부도시권, 동부연안권으로 나누어 총 509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는 40대가 37.5%, 30대 36.0%, 20대 26.5%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상 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기혼 64.0%, 다음으로 미혼 32.4%, 기타 2.8%의 순이었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 81.7%, 독신 7.7%, 확대가족 7.3%, 기타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장기거주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15-20년 미만 12.6%, 5-10년 미만 9.2%, 10-15년 미만 8.4%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배우자 소득 포함)은 200-300만원 미만 26.9%, 300-400만원 미만 24.2%, 200만원 미만 22.8%, 400-500만원 미만 14.5%, 500만원 이상 8.8% 순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는 동부연안권 33.2%, 중서부내륙권 26.1%, 남부도시권 22.8%, 북부자원권 17.9%로 나타났다.

Ⅲ. 2040 경북여성 정책수요조사 결과 분석 lxxxv

<표 Ⅲ-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응답 수,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전 체		509	100.0%
권역	북부자원권	91	17.9%
	중서부내륙권	133	26.1%
	남부도시권	116	22.8%
	동부연안권	169	33.2%
연령	20대	135	26.5%
	30대	183	36.0%
	40대	191	37.5%
거주기간	5년 미만	84	16.5%
	5-10년 미만	47	9.2%
	10-15년 미만	43	8.4%
	15-20년 미만	64	12.6%
	20년 이상	258	50.7%
	무응답	13	2.6%
학력	고졸이하	148	29.1%
	대학재학	59	11.6%
	대졸이상	302	59.3%
혼인상태	기혼	326	64.0%
	미혼	165	32.4%
	기타	14	2.8%
	무응답	4	.8%
가족형태	독신	39	7.7%
	핵가족	416	81.7%
	확대가족	37	7.3%
	기타	14	2.8%
	무응답	3	.6%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6	22.8%
	200-300만원 미만	137	26.9%
	300-400만원 미만	123	24.2%
	400-500만원 미만	74	14.5%
	500만원 이상	45	8.8%
	무응답	1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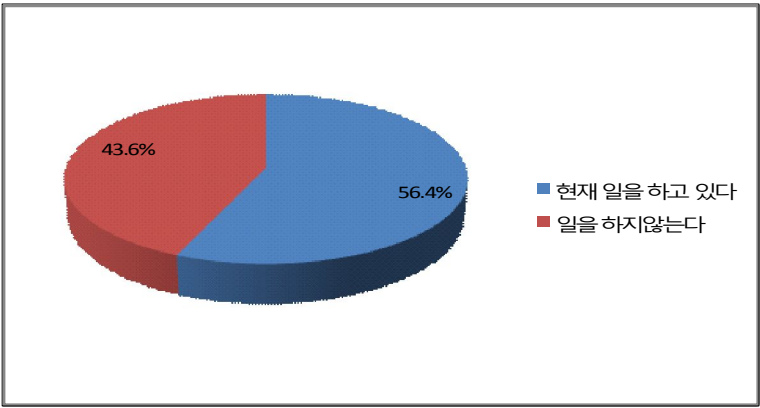
2) 취업 및 경제활동

○ <표 Ⅲ-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 일을 하지 않는다 43.6%로 나타났다.

<표 Ⅲ-3> 취업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현재 일을 하고 있다	287(56.4)
일을 하지 않는다	222(43.6)
합계	509(100.00)



<그림 Ⅲ-1> 취업 여부

○ <표 Ⅲ-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56.4%로 나타났으며, 남부도시권의 경우 62.1%, 동부연안

권 58.8%, 북부자원권 56.0%, 중서부내륙권 51.1% 순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중 40대(62.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53.3%, 30대 52.5%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40대 이상이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표 III-4> 취업 여부(변인별)

(단위 : 응답 수, %)

구 분			취업 여부				χ^2 검증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		
전 체 509			287	(56.4)	222	(43.6)	-
권역	북부자원권	91	51	(56.0)	40	(44.0)	$\chi^2=3.035$ df=3 (p= .386)
	중서부내륙권	133	68	(51.1)	65	(48.9)	
	남부도시권	116	72	(62.1)	44	(37.9)	
	동부연안권	169	96	(56.8)	73	(43.2)	
연령	20대	135	72	(53.3)	63	(46.7)	$\chi^2=4.379$ df=2 (p= .112)
	30대	183	96	(52.5)	87	(47.5)	
	40대	191	119	(62.3)	72	(37.7)	
학력	고졸이하	148	74	(50.0)	74	(50.0)	$\chi^2=21.533$ df=2 (p= .000)
	대학재학	59	20	(33.9)	39	(66.1)	
	대졸이상	302	193	(63.9)	109	(36.1)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16	78	(67.2)	38	(32.8)	$\chi^2=17.738$ df=5 (p= .003)
	200-300만원 미만	137	65	(47.4)	72	(52.6)	
	300-400만원 미만	123	66	(53.7)	57	(46.3)	
	400-500만원 미만	74	43	(58.1)	31	(41.9)	
	500만원 이상	45	31	(68.9)	14	(31.1)	
	무응답	14	4	(28.6)	10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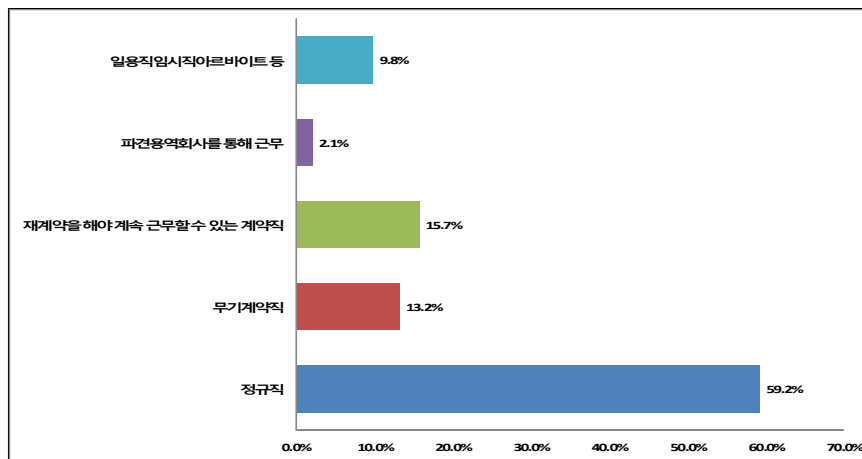
- 현재 일하고 있는 응답자 중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의 경우 59.2%,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15.7%), 무기 계약직(13.2%),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9.8%), 파견 용역 회사를 통해 근무하는 형태(2.1%)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정규직에 속하고 있음.

<표 III-5>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단위 : 응답 수, %)

구분	빈도(백분율)
정규직	170(59.2)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	45(15.7)
무기 계약직	38(13.2)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	28(9.8)
파견 용역 회사를 통해 근무	6(2.1)
합계	287(100.00)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해, n=287



<그림 III-2>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정규직(63.9%),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16.7%),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13.9%), 무기 계약직(2.8%)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0대의 경우 정규직(52.9%),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16.8%), 무기직(16.8%),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10.1%), 파견 용역회사를 통해 근무(3.4%) 등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6> 연령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단위 : 응답 수, %)

구 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χ^2 검증
			정규직	무기 계약직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	파견용역 회사를 통해 근무	일용직임시 직아르바이 트 등		
연령	20대	72	46 (63.9)	2 (2.8)	12 (16.7)	2 (2.8)	10 (13.9)	$\chi^2=15.300$ df=8 (p= .054)	
	30대	96	61 (63.5)	16 (16.7)	13 (13.5)		6 (6.3)		
	40대	119	63 (52.9)	20 (16.8)	20 (16.8)	4 (3.4)	12 (10.1)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해, n=287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의 경우 정규직(48.6%), 무기 계약직(18.9%),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14.9%),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13.5%), 파견 용역회사를 통해 근무(4.1%)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경우 정규직(66.3%),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16.6%), 무기 계약직(10.9%),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5.2%), 파견 용역회사를 통해 근무(1.0%)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7> 학력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단위 : 응답 수, %)

구 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χ^2 검증
		정규직	무기 계약직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	파견용역 회사를 통해 근무	일용직임시 직아르바이 트 등		
학 력	고졸이하 74	36 (48.6)	14 (18.9)	10 (13.5)	3 (4.1)	11 (14.9)	$\chi^2=31.294$ df=8 (p= .000)	
	대학재학 20	6 (30.0)	3 (15.0)	3 (15.0)	1 (5.0)	7 (35.0)		
	대졸이상 193	128 (66.3)	21 (10.9)	32 (16.6)	2 (1.0)	10 (5.2)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이하의 경우 정규직(60.3%),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21.8%),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정규직(53.0%), 무기 계약직(25.8%),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10.6%),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6.1%), 파견 용역회사를 통해 근무(4.5%)로 나타났으며,

○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정규직(69.8%),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11.6%), 무기 계약직(11.6%),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4.7%), 파견 용역회사를 통해 근무(2.3%) 등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Ⅲ-8> 월평균 소득에 따른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단위 : 응답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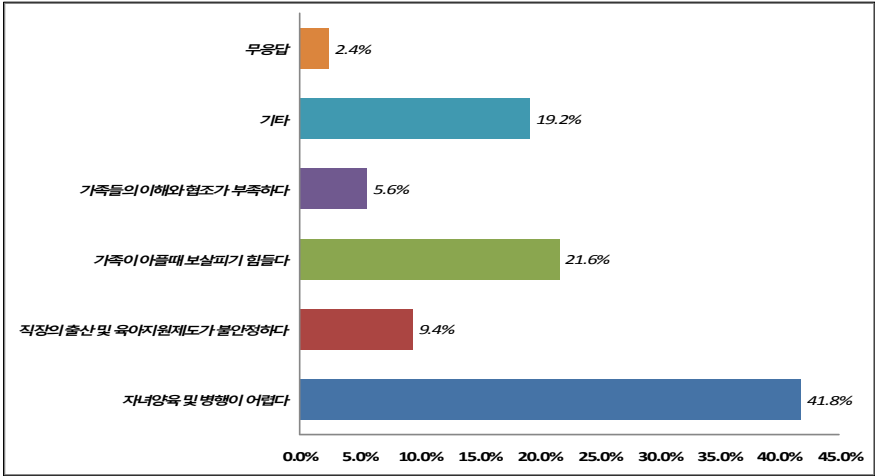
구 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χ ² 검증
		정규직	무기 계약직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	파견용역 회사를 통해 근무	일용직임 시직아르 바이트 등		
전 체		287	170 (59.2)	38 (13.2)	45 (15.7)	6 (2.1)	28 (9.8)	-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78	47 (60.3)	6 (7.7)	17 (21.8)	1 (1.3)	7 (9.0)	χ ² =33.691 df=20 (p= .028)
	200-300만원 미만	65	31 (47.7)	8 (12.3)	12 (18.5)	1 (1.5)	13 (20.0)	
	300-400만원 미만	66	35 (53.0)	17 (25.8)	7 (10.6)	3 (4.5)	4 (6.1)	
	400-500만원 미만	43	30 (69.8)	5 (11.6)	5 (11.6)	1 (2.3)	2 (4.7)	
	500만원 이상	31	23 (74.2)	2 (6.5)	4 (12.9)		2 (6.5)	
	무응답	4	4 (100.0)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해, n=287

○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 자녀 양육 및 병행이 어렵다(41.8%), 가족이 아플 대 보살피기 힘들다(21.6%), 직장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가 불안정하다(9.4%),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5.5%) 등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가사와 직장생활에 대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회사 내 보육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III-9>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자녀 양육 및 병행이 어렵다	120(41.8)
직장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가 불안정하다	27(9.4)
가족이 아플 때 보살피기 힘들다	62(21.6)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	16(5.5)
기타	55(19.2)
무응답	7(2.4)
합계	287(100.00)



<그림 III-3>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

○ 월평균 가구소득별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 양육 및 병행이 어렵다(29.5%)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이 아플 때 보살피기 힘들다(21.8%), 직장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가 불안정하다(11.5%), 가

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5.1%) 등으로 나타났음.

○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 양육 및 병행이 어렵다(42.4%), 가족이 아플 때 보살피기 힘들다(27.3%), 직장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가 불안정하다(10.6%),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7.6%)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표 Ⅲ-10> 월평균 가구소득별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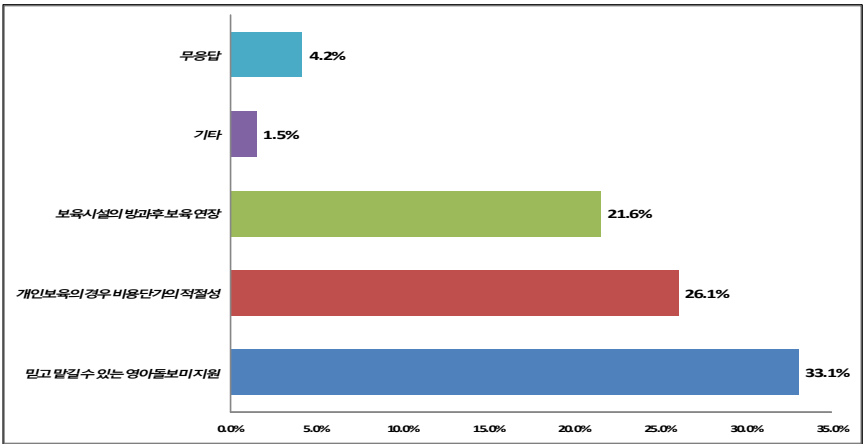
구 분		직장생활 가장 큰 장애요인						χ^2 검증
		자녀 양육 및 병행이 어렵다	직장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가 불안정하다	가족이 아플 때 보살피기 힘들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	기타	무응답	
200만원 미만	78	23 (29.5)	9 (11.5)	17 (21.8)	4 (5.1)	24 (30.8)	1 (1.3)	$\chi^2=44.629$ df=25 (p= .009)
200-300만원 미만	65	36 (55.4)	5 (7.7)	11 (16.9)	2 (3.1)	9 (13.8)	2 (3.1)	
300-400만원 미만	66	28 (42.4)	7 (10.6)	18 (27.3)	5 (7.6)	7 (10.6)	1 (1.5)	
400-500만원 미만	43	22 (51.2)		8 (18.6)	3 (7.0)	10 (23.3)		
500만원 이상	31	10 (32.3)	6 (19.4)	7 (22.6)	1 (3.2)	5 (16.1)	2 (6.5)	
무응답	4	1 (25.0)		1 (25.0)	1 (25.0)		1 (25.0)	

○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이 필요하다 (33.1%),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하다(26.1%),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21.6%), 기타 (15.0%), 무응답(4.2%)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및 돌보미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표 III-11>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이 시급하다	95(33.1)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의 적절성	75(26.1)
보육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62(21.6)
기 타	43(15.0)
무응답	12(4.2)
합 계	287(100.00)



<그림 III-4>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 권역별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북부자원권의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47.1%)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27.5%),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13.5%), 기타 (9.8%), 무응답(2.0%) 순으로 나타났음.

○ 남부도시권의 경우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26.4%),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 (18.1%) 등으로 나타났으며, 동부연안권의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34.4%),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28.1%),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21.9%), 기타 (14.6%), 무응답(1.0%) 등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Ⅲ-12> 권역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단위 : 응답 수, %)

구 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χ^2 검증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	개인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의 적절성	보육시설의 방과후 보육 연장		기타	무응답		
북부자원권 51	24 (47.1)	14 (27.5)	7 (13.7)	5 (9.8)	1 (2.0)		$\chi^2=33.289$ df=12 (p= .001)	
중서부내륙권 68	21 (30.9)	21 (30.9)	15 (22.1)	11 (16.2)				
남부도시권 72	17 (23.6)	13 (18.1)	19 (26.4)	13 (18.1)	10 (13.9)			
동부연안권 96	33 (34.4)	27 (28.1)	21 (21.9)	14 (14.6)	1 (1.0)			

○ 월평균 가구소득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

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0만원 미만의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35.9%),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15.4%),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20.5%), 기타 (26.9%), 무응답(1.3%)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41.9%)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30.2%),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26.4%),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18.6%) 등으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의 경우,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32.3%)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29.0%),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16.1%)등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정책에 대한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13> 월평균 가구소득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단위 : 응답 수, %)

구 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χ^2 검증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	개인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의 적절성	보육시설의 방과후 보육 연장	기타	무응답	
200만원 미만	78	28 (35.9)	12 (15.4)	16 (20.5)	21 (26.9)	1 (1.3)	$\chi^2=36.064$ df=20 (p= .015)
200-300만원 미만	65	22 (33.8)	14 (21.5)	20 (30.8)	8 (12.3)	1 (1.5)	
300-400만원 미만	66	22 (33.3)	21 (31.8)	12 (18.2)	7 (10.6)	4 (6.1)	
400-500만원 미만	43	13 (30.2)	18 (41.9)	8 (18.6)	2 (4.7)	2 (4.7)	
500만원 이상	31	9 (29.0)	10 (32.3)	5 (16.1)	4 (12.9)	3 (9.7)	
무응답	4	1 (25.0)		1 (25.0)	1 (25.0)	1 (25.0)	

- 한편 과거 취업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경험이 있는 경우 83.3%, 과거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16.7%를 응답하였음. 또한 향후 취업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한다(76.1%)가 가장 높았으며, 희망하지 않는다(23.4%), 무응답(0.5%) 순으로 나타나 향후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임.

<표 Ⅲ-14> 과거 취업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있다	185(83.3)
없다	37(16.7)
합계	222(100.00)

- 향후 취업 희망 여부를 살펴본 결과 희망하는 경우(76.1%)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23.4%)로 각각 나타났음.

<표 Ⅲ-15> 향후 취업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예	169(76.1)
아니오	52(23.4)
무응답	1(.05)
합계	222(100.00)

- 희망하는 취업 형태에 대하여 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부자원권의 경우 시간제(57.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전일제(42.9%)로 나타나며, 중서부내륙권의 경우 전일제 (56.9%), 시간제(41.2%), 남부도시권의 경우 시간제(58.1%),전일제(41.9)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부연안권의 경우 전일제(61.0%), 시간제(28.8%) 순으로 각각 나타났음.

<표 III-16> 권역별 희망하는 취업 형태

(단위: 명, %)

구 분			희망하는 취업형태				χ^2 검증
			전일제		시간제		
전 체 169			90 (53.3)	72 (42.6)	7 (4.1)	-	
권역	북부자원권	28	12 (42.9)	16 (57.1)		$\chi^2=16.098$ df=6 (p= .013)	
	중서부내륙권	51	29 (56.9)	21 (41.2)	1 (2.0)		
	남부도시권	31	13 (41.9)	18 (58.1)			
	동부연안권	59	36 (61.0)	17 (28.8)	6 (10.2)		

- 한편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취업 형태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전일제(80.0%), 시간제(18.0%)로 응답하였으며, 30대의 경우 전일제(47.0%), 시간제(51.5%), 40대의 경우 전일제(35.8%), 시간제(54.7%)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17> 연령별 희망하는 취업 형태

(단위: 명, %)

구 분			희망하는 취업형태				χ ² 검증
			전일제		시간제		
연령	20대	50	40 (80.0)	9 (18.0)	1 (2.0)	χ ² =25.617 df=4 (p= .000)	
	30대	66	31 (47.0)	34 (51.5)	1 (1.5)		
	40대	53	19 (35.8)	29 (54.7)	5 (9.4)		

- 학력별도 마찬가지로 고졸이하의 경우 전일제(34.0%), 시간제(58.5%), 대학 재학의 경우 전일제(81.8%)가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시간제(18.2%) 순으로 나타나며, 대졸 이상의 경우 전일제(54.2%), 시간제(42.2%)를 각각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전일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Ⅲ-18> 학력별 희망하는 취업 형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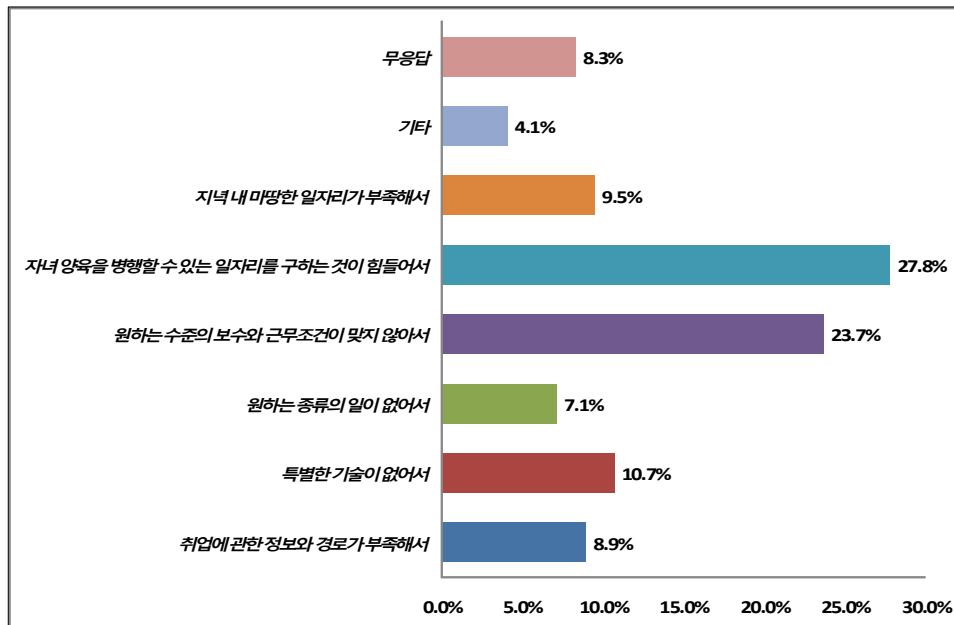
구 분			희망하는 취업형태						χ^2 검증
			전일제		시간제		무응답		
학력	고졸이하	53	18	(34.0)	31	(58.5)	4	(7.5)	$\chi^2=19.444$ df=4 (p= .001)
	대학재학	33	27	(81.8)	6	(18.2)			
	대졸이상	83	45	(54.2)	35	(42.2)	3	(3.6)	

-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27.8%),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23.7%),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10.7%),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9.5%),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8.9%), 원하는 종류의 일자리가 없어서(7.1%)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19>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	15(8.9)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18(10.7)
원하는 종류의 일이 없어서	12(7.1)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	40(23.7)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47(27.8)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16(9.5)
기타	7(4.1)
무응답	14(8.3)
합계	169(100.00)



<그림 III-5>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 직장을 구할 때 가장 힘든 점에 대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38.0%),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18.0%), 원하는 종류의 일자리가 없어서(12.0%),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8.0%),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10.0%)순으로 나타났음.

○ 30대의 경우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45.5%),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13.6%),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13.6%),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7.6%),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7.6%)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40대의 경우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24.5%),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22.6%),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17.0%),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11.3%) 등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20> 연령별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단위: 명, %)

구 분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χ^2 검증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 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원하는 종류의 일이 없어서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 건이 맞지 않아서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를 구하 는 것이 힘들어서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 가 부족 해서	기타	무응답	
연 령	20대	50	9 (18.0)		6 (12.0)	19 (38.0)	4 (8.0)	5 (10.0)	3 (6.0)	4 (8.0)	$\chi^2=42.744$ df=14 (p= .000)
	30대	66	5 (7.6)	9 (13.6)	2 (3.0)	9 (13.6)	30 (45.5)	5 (7.6)	2 (3.0)	4 (6.1)	
	40대	53	1 (1.9)	9 (17.0)	4 (7.5)	12 (22.6)	13 (24.5)	6 (11.3)	2 (3.8)	6 (11.3)	

○ 또한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의 경우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26.4%),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22.6%),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15.1%),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9.4%),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7.6%), 원하는 종류의 일이 없어서(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대학재학의 경우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33.3%),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21.2%),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12.1%) 순으로 나타나며 대졸이상의 경우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37.3%),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25.3%),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8.4%),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6.0%)등을 보이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임.

<표 Ⅲ-21> 학력별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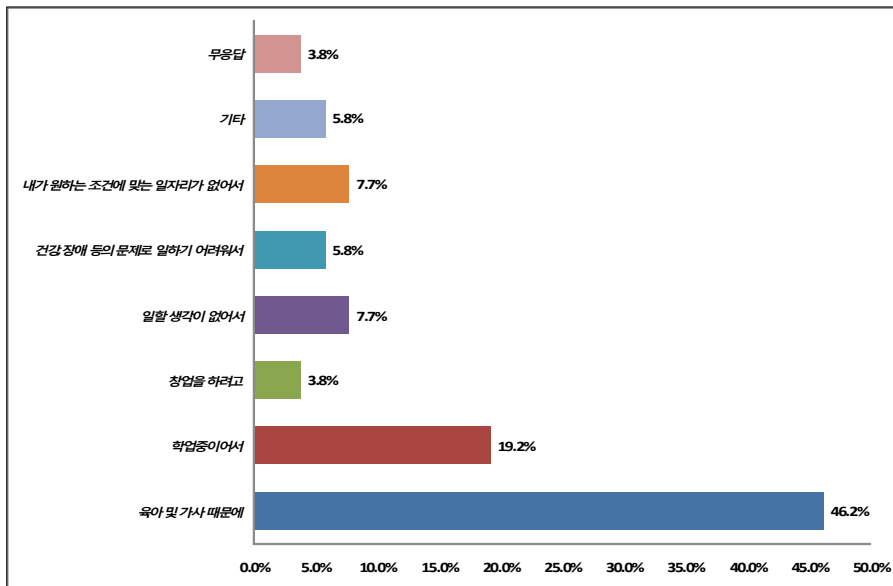
구 분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								χ ² 검증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 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원하는 종류의 일이 없어서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 건이 맞지 않아서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를 구하 는 것이 힘들어서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 가 부족 해서	기타	무응답	
학 력	고졸이하	53	3 (5.7)	12 (22.6)	4 (7.5)	8 (15.1)	14 (26.4)	5 (9.4)	2 (3.8)	5 (9.4)	χ ² =33.513 df=14 (p= .002)
	대학재학	33	7 (21.2)	2 (6.1)	3 (9.1)	11 (33.3)	2 (6.1)	4 (12.1)	3 (9.1)	1 (3.0)	
	대졸이상	83	5 (6.0)	4 (4.8)	5 (6.0)	21 (25.3)	31 (37.3)	7 (8.4)	2 (2.4)	8 (9.6)	

○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육아 및 가사 때문
에(46.2%), 학업 중이어서(19.2%), 일할 생각이 없어서(7.7%), 내가 원
하는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7.7%), 건강, 장애 등의 문제로 일하기가
어려워서(5.8%). 창업을 하려고(3.8%)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22>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육아 및 가사 때문에	24(46.2)
학업 중이어서	10(19.2)
창업을 하려고	2(3.8)
일할 생각이 없어서	4(7.7)
건강, 장애 등의 문제로 일하기가 어려워서	3(5.8)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7.7)
기타	3(5.8)
무응답	2(3.8)
합계	52(100.00)



<그림 III-6>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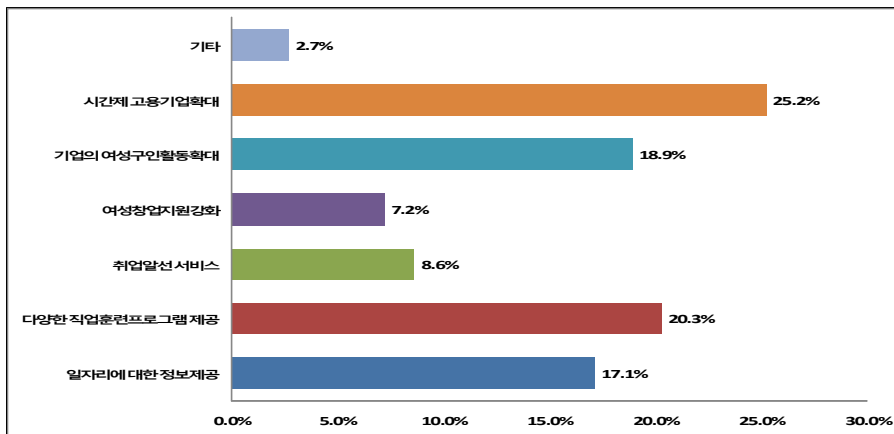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현재 일

을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 222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시간제 고용 기업 확대(25.2%), 기업의 여성구인 활동 확대(25.2%),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20.3%),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17.1%), 취업알선 서비스(8.6%) 순으로 나타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및 기업의 여성취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구인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표 Ⅲ-23>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38(17.1)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45(20.3)
취업알선 서비스	19(8.6)
여성 창업지원 강화	16(7.2)
기업의 여성구인 활동 확대	42(18.9)
시간제 고용 기업 확대	56(25.2)
기타	6(2.7%)
합계	222(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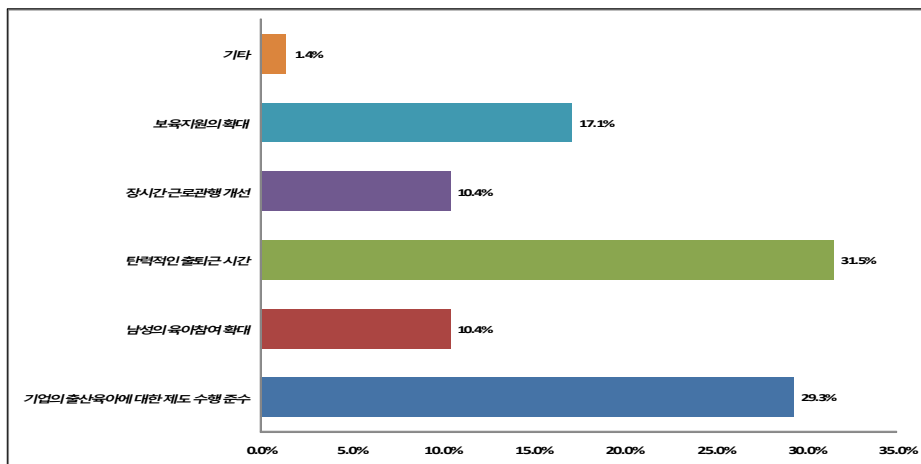
<그림 Ⅲ-7>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탄력적인 출퇴근 시간(31.5%), 기업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 수행 준수(29.3%), 보육지원의 확대(17.1%),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10.4%),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10.4%) 순으로 나타나므로 기업의 여성의 산전후 휴가제도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유연한 근로시간의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해야 할 것임.

<표 III-24>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기업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 수행 준수	65(29.3)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23(10.4)
탄력적인 출퇴근 시간	70(31.5)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23(10.4)
보육지원의 확대	38(17.1)
기타	6(2.7%)
합계	222(100.00)



<그림 III-8>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연령대별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대의 경우 기업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 수행 준수(50.8%), 보육지원의 확대(20.6%),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9.5%),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10.4%), 탄력적인 출퇴근 시간(9.5%) 순으로 나타났음.

○ 30대의 경우 탄력적인 출퇴근 시간(34.5%), 보육지원의 확대(24.1%), 기업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 수행 준수(21.8%),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11.5%),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8.0%)등으로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탄력적인 출퇴근 시간(47.2%), 기업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 수행 준수(19.4%),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15.3%),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9.7%), 보육지원의 확대(5.6%)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25> 연령대별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 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χ ² 검증
	기업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 수행 준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탄력적인 출퇴근시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보육지원의 확대	기타			
20대 63	32 (50.8)	6 (9.5)	6 (9.5)	5 (7.9)	13 (20.6)	1 (1.6)	χ ² =43.057 df=10 (p= .000)		
30대 87	19 (21.8)	10 (11.5)	30 (34.5)	7 (8.0)	21 (24.1)				
40대 72	14 (19.4)	7 (9.7)	34 (47.2)	11 (15.3)	4 (5.6)	2 (2.8)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에 한해, n=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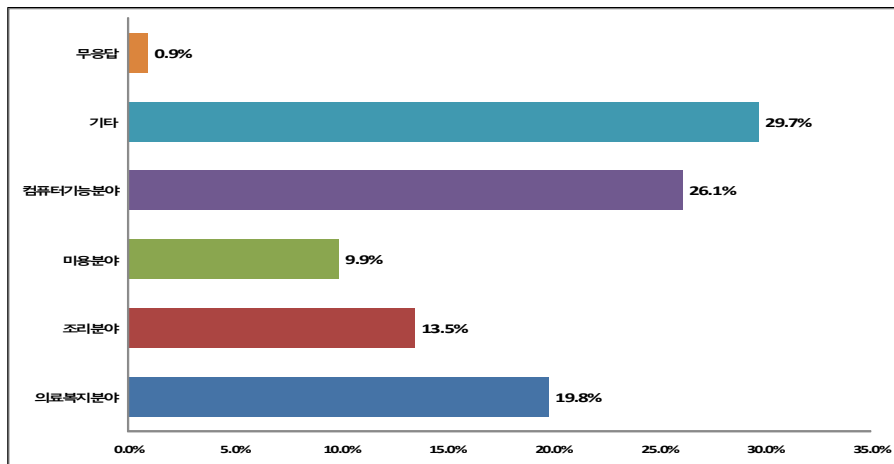
- 희망하는 취업 분야를 살펴본 결과 컴퓨터 기능 분야(제품 대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26.1%), 의료복지분야(간병인, 간호사 등)(19.8%), 조리분야(요리사, 조리사 등)(13.5%), 미용분야(미용사, 네일 아트 등)(9.9%) 등으로 나타났음.

<표 III-26> 희망하는 취업 분야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의료복지분야(간병인, 간호사 등)	44(19.8)
조리분야(요리사, 조리사 등)	30(13.5)
미용분야(미용사, 네일 아트 등)	22(9.9)
컴퓨터 기능 분야(제품 대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	58(26.1)
기타	66(29.7)
무응답	2(0.9%)
합계	222(100.00)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에 한해, n=222



<그림 III-9> 희망하는 취업 분야

○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취업 분야를 살펴본 결과 20대의 경우 의료복지분야(간병인, 간호사 등)(21.7%)이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기능 분야(제품 디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23.8%), 미용분야(미용사, 네일 아트 등)(6.3%), 조리분야(요리사, 조리사 등)(3.2%) 순으로 나타났으며,

○ 30대의 경우 컴퓨터 기능 분야(제품 디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32.2%), 미용분야(미용사, 네일 아트 등)(16.1%), 의료복지분야(간병인, 간호사 등)(11.5%), 조리분야(요리사, 조리사 등)(8.0%), 반면 40대의 경우 조리분야(요리사, 조리사 등)(29.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컴퓨터 기능 분야(제품 디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20.8%), 의료복지분야(간병인, 간호사 등)(19.4%), 미용분야(미용사, 네일 아트 등)(5.6%)등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선호하는 취업분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27> 연령별 희망하는 취업 분야

(단위: 명, %)

구 분			희망하는 취업 분야							χ ² 검증
			의료복지 분야 (간병인, 간호사 등)	조리분야 (요리사, 조리사 등)	미용분야 (미용사, 네일 아트 등)	컴퓨터 기능 분야 (제품 디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	기타	무응답		
연 령	20대	63	20 (31.7)	2 (3.2)	4 (6.3)	15 (23.8)	22 (34.9)		χ ² =37.539 df=10 (p= .000)	
	30대	87	10 (11.5)	7 (8.0)	14 (16.1)	28 (32.2)	27 (31.0)	1 (1.1)		
	40대	72	14 (19.4)	21 (29.2)	4 (5.6)	15 (20.8)	17 (23.6)	1 (1.4)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에 한해, n=222

○ 학력별로 희망하는 취업 분야를 살펴본 결과 고졸이하의 경우, 컴퓨터 기능 분야(제품 디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21.6%)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리분야(요리사, 조리사 등)(21.6%), 의료복지분야(간병인, 간호사 등)(17.6%), 미용분야(미용사, 네일 아트 등)(12.2%)순으로 나타났음.

○ 대학재학의 경우, 의료복지분야(간병인, 간호사 등)(48.7%), 컴퓨터 기능 분야(제품 디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17.9%), 미용분야(미용사, 네일 아트 등)(5.1%)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경우, 컴퓨터 기능 분야(제품 디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32.1%), 조리분야(요리사, 조리사 등)(12.8%), 의료복지분야(간병인, 간호사 등)(11.0%), 미용분야(미용사, 네일 아트 등)(10.1%) 등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28> 학력별 희망하는 취업분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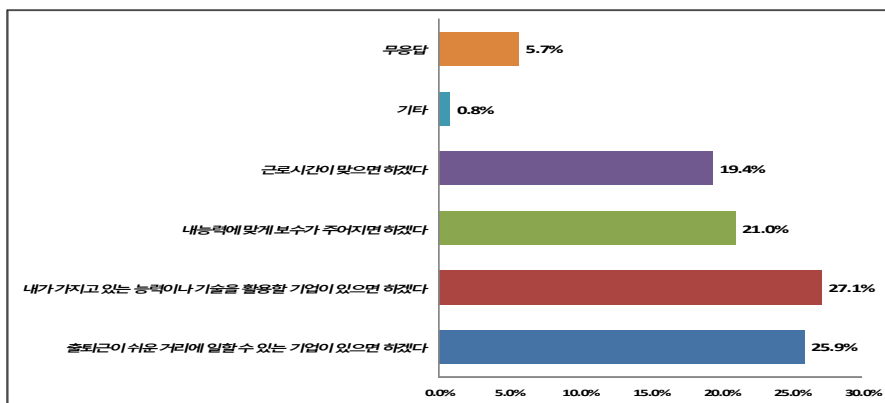
구 분		희망하는 취업 분야						χ ² 검증
		의료복지 분야 (간병인, 간호사 등)	조리분야 (요리사, 조리사 등)	미용분야 (미용사, 네일 아트 등)	컴퓨터 기능 분야 (제품 디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	기타	무응답	
학 력	고졸이하	74	13 (17.6)	16 (21.6)	9 (12.2)	16 (21.6)	20 (27.0)	χ ² =36.640 df=10 (p= .000)
	대학재학	39	19 (48.7)		2 (5.1)	7 (17.9)	11 (28.2)	
	대졸이상	109	12 (11.0)	14 (12.8)	11 (10.1)	35 (32.1)	35 (32.1)	

○ 향후 취업을 고려할 때 가장 충족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27.1%)이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에 쉬운 거리에 일할 수 있는 기업 (25.9%), 내 능력에 맞게 보수가 주어진다면(21.0%), 근로시간이 맞으면(19.4%) 등으로 나타나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취업에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표 Ⅲ-29> 취업 시 가장 충족되어야 할 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출퇴근에 쉬운 거리에 일할 수 있으면	132(25.9)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138(27.1)
내 능력에 맞게 보수가 주어지면	107(21.0)
근로시간이 맞으면	99(19.4)
기타	4(0.8)
무응답	29(5.7%)
합계	509(100.00)



<그림 Ⅲ-10> 취업 시 가장 충족되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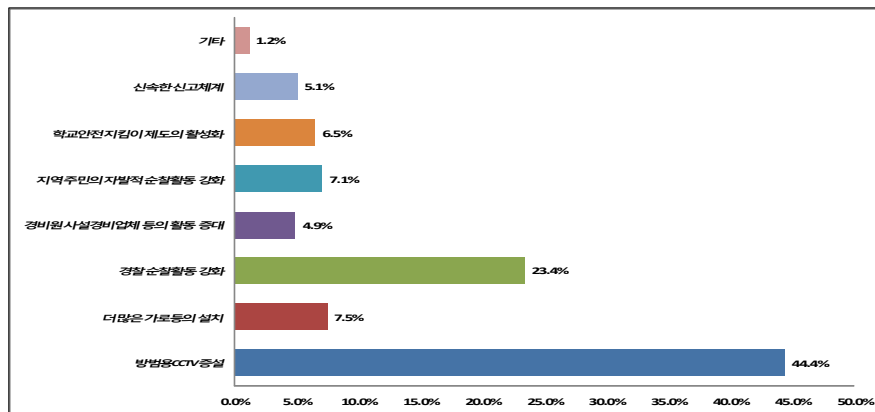
3) 안전 및 인권 부문

○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방법용 CCTV 증설(44.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 순찰활동 강화(23.4%), 더 많은 가로등의 설치(7.5%), 지역 주민의 자발적 순찰(7.1%) 학교 안전 지킴이 제도의 활성화(6.5%), 신속한 신고체계(5.1%) 순으로 나타나 지역의 방법용 CCTV 증설이나 경찰 순찰 활동 강화 등 지역 안전증진에 적극 참여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되었음.

<표 III-30>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방법용 CCTV 증설	226(44.4)
더 많은 가로등의 설치	38(7.5)
경찰 순찰활동 강화	119(23.4)
경비원 사설경비업체 등의 활용 증대	25(4.9)
지역 주민의 자발적 순찰	36(7.1)
학교 안전 지킴이 제도의 활성화	33(6.5)
신속한 신고체계	26(5.1)
기타	6(1.2)
합계	509(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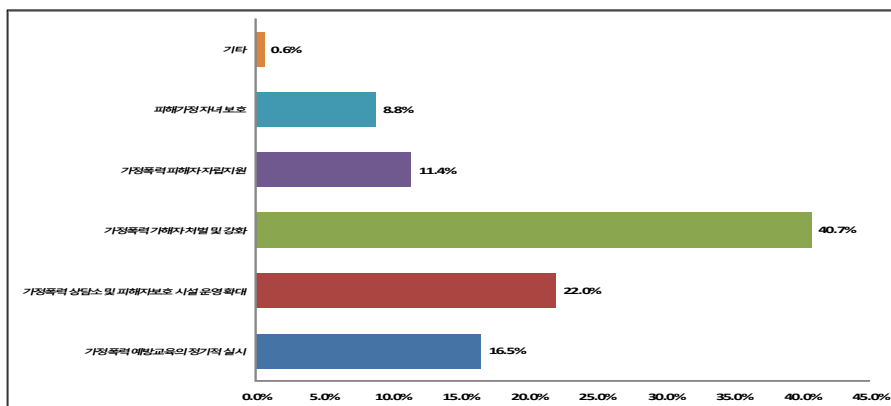
<그림 III-11>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40.7%)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화(22.0%),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16.5%),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제공 등)(11.4%) 및 피해가정 자녀 보호(8.8%)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Ⅲ-31>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	84(16.5)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112(22.0)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	207(40.7)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58(11.4)
(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등)	
피해가정 자녀 보호	45(8.8)
기타	3(0.6)
합계	509(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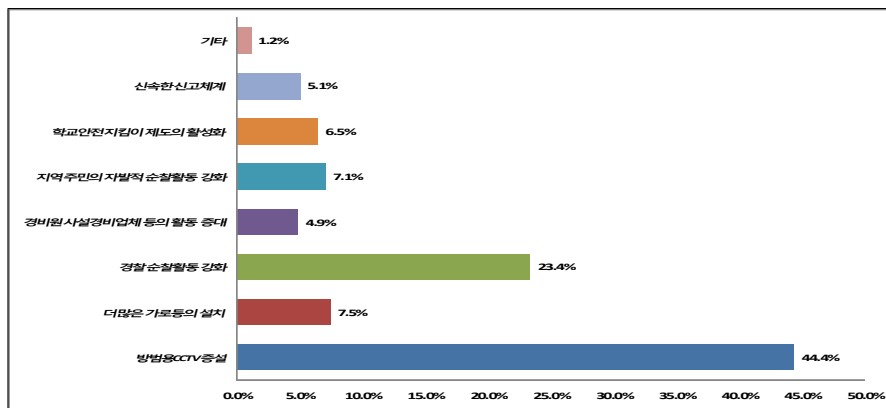
<그림 Ⅲ-1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또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과 같이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56.4%)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12.6)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화(11.8%), 소규모 단위의 성폭력 예방교육 정기적 실시(11.6%),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제공 등)(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소규모 단위의 성폭력 예방교육 정기적 실시	59(11.6)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시설	60(11.8)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	287(56.4)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등)	34(6.7)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	64(12.6)
기타	2(0.4)
무응답	3(0.6)
합계	509(100.00)



<그림 III-13>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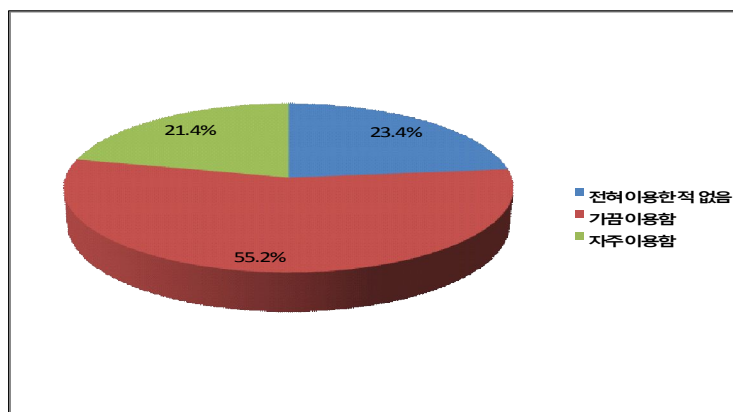
4) 문화 부문

- 최근 1년간 문화 활동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끔 이용하는 경우(55.2%)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23.4%), 자주 이용하는 경우(21.4%)로 각각 조사되었음.

<표 Ⅲ-33> 최근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전혀 이용한 적 없음	119(23.4)
가끔 이용함	281(55.2)
자주 이용함	109(21.4)
합계	509(100.00)



<그림 Ⅲ-14> 최근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 권역별로 최근 1년간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북부 자원권의 경우 가끔 이용하는 경우(52.7%)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자주 이용하는 경우(26.4%),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20.9%)로 나타났으며, 중서부내륙권의 경우 가끔 이용하는 경우(51.9%), 자주 이용하는 경우(24.8%),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23.3%)로 응답하였음.

○ 한편 남부도시권의 경우 가끔 이용하는 경우(51.7%)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35.3%), 자주 이용하는 경우(12.9%)를 보였음.

○ 동부연안권의 경우는 가끔 이용하는 경우(61.5%)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주 이용하는 경우(21.9%),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16.6%)로 나타나 권역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표 III-34> 권역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 분			최근 1년 동안 문화활동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 경험			χ^2 검증
			전혀 이용한 적 없음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전 체		509	119 (23.4)	281 (55.2)	109 (21.4)	-
권역	북부자원권	91	19 (20.9)	48 (52.7)	24 (26.4)	$\chi^2=18.228$ df=6 (p= .006)
	중서부내륙권	133	31 (23.3)	69 (51.9)	33 (24.8)	
	남부도시권	116	41 (35.3)	60 (51.7)	15 (12.9)	
	동부연안권	169	28 (16.6)	104 (61.5)	37 (21.9)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최근 1년간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의 경우 가끔 이용하는 경우(52.6%)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34.5%), 자주 이용하는 경우(12.9%)로 나타났으며,

○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가끔 이용하는 경우(54.5%), 자주 이용하는 경우(27.6%),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17.9%)로 나타났음. 한편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가끔 이용하는 경우(59.5%)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자주 이용하는 경우(24.3%),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16.2%) 순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표 III-35> 월평균 가구소득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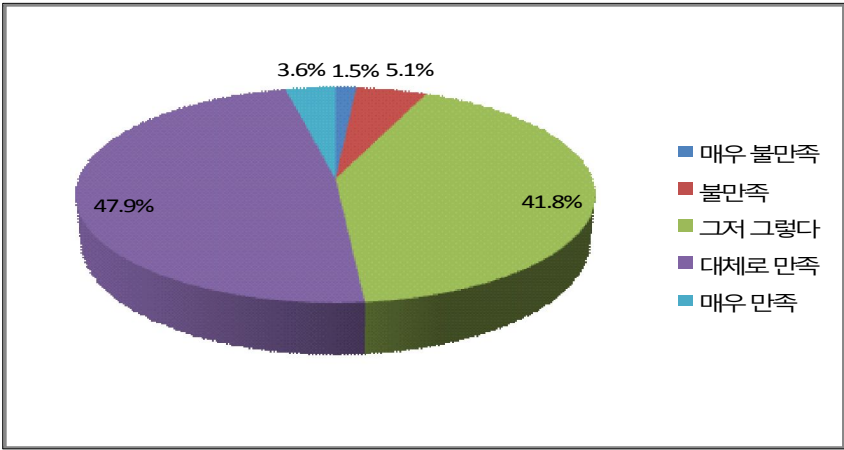
구 분			최근 1년 동안 문화활동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 경험						χ ² 검증
			전혀 이용한 적 없음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16	40	(34.5)	61	(52.6)	15	(12.9)	χ ² =27.186 df=10 (p= .002)
	200-300만원 미만	137	25	(18.2)	85	(62.0)	27	(19.7)	
	300-400만원 미만	123	22	(17.9)	67	(54.5)	34	(27.6)	
	400-500만원 미만	74	12	(16.2)	44	(59.5)	18	(24.3)	
	500만원 이상	45	13	(28.9)	20	(44.4)	12	(26.7)	
	무응답	14	7	(50.0)	4	(28.6)	3	(21.4)	

○ 문화시설을 이용한 응답자 390명에 대하여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 경우(47.9%)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41.8%), 불만족함(5.1%), 매우 만족한 경우(3.6%), 매우 불만족한 경우(1.5%)로 각각 응답하였음.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III-36>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문화시설 이용 만족 정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 체	390	6 (1.5)	20 (5.1)	163 (41.8)	187 (47.9)	14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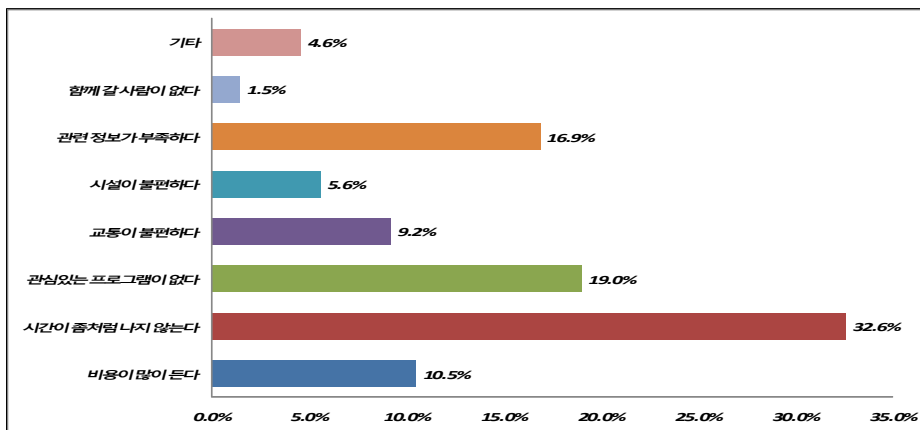
<그림 III-15>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또 지역 문화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32.5%)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19.0%), 관련 문화행사 정보가 부족하다(16.9%), 비용이 많이 든다(10.5%), 교통이 불편하다(9.2%),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5.6%), 함께 갈 사람이 없다(1.5%)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Ⅲ-37> 지역문화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비용이 많이 든다	41(10.5)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127(32.6)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74(19.0)
교통이 불편하다	36(9.2)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22(5.6)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66(16.9)
함께 갈 사람이 없다	6(1.5)
기타	18(4.6)
합계	390(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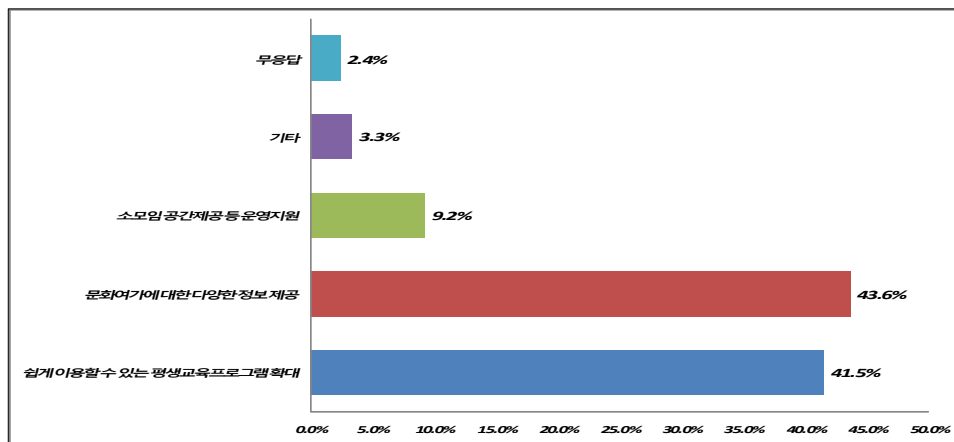
<그림 Ⅲ-16> 지역 문화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

○ 한편 여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살펴본 결과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4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41.5%),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 지원(9.2%), 기타(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여성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211(41.5)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222(43.6)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47(9.2)
기타	17(3.3)
무응답	12(2.4)
합계	509(100.00)



<그림 III-17> 여성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따라서 지역의 문화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특성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여성들의 문화생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교양프로그램의 확대 및 문화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혼인상태에 따라 여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살펴본 결과 기혼의 경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46.9%)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38.7%),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 지원(8.6%)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미혼인 경우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55.2%)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31.5%),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 지원(9.7%)순으로 나타나 혼인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표 III-39> 혼인상태별 여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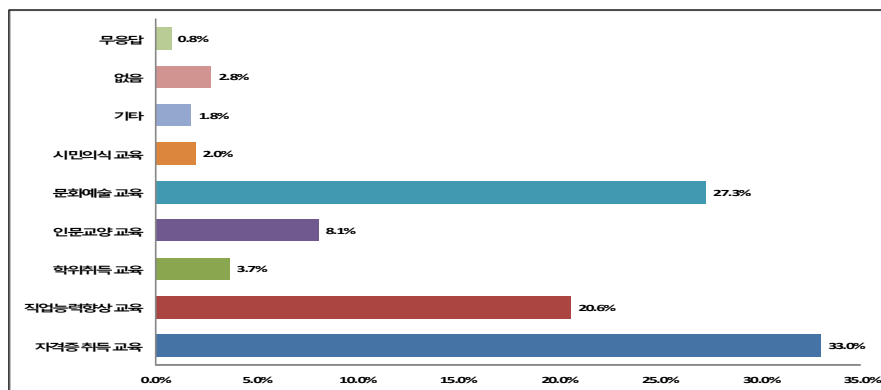
구 분	여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χ ² 검증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기타	무응답			
전 체	509	211 (41.5)	222 (43.6)	47 (9.2)	17 (3.3)	12 (2.4)		-	
기혼	326	153 (46.9)	126 (38.7)	28 (8.6)	11 (3.4)	8 (2.5)			χ ² =49.514 df=12 (p= .000)
미혼	165	52 (31.5)	91 (55.2)	16 (9.7)	2 (1.2)	4 (2.4)			
기타	14	5 (35.7)	2 (14.3)	3 (21.4)	4 (28.6)	-			
무응답	4	1 (25.0)	3 (75.0)	-	-	-			

○ 평소에 가장 받고 싶었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격증 취득 교육(33.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27.3%), 직업능력향상교육(20.6%), 인문교양교육(8.1), 학위취득교육(학점은행제)(3.7%), 시민의식교육(2.0%) 순으로 응답하였음. 점차 평생교육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직업과의 연계 및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에도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40> 평소 가장 받고 싶었던 평생교육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자격증 취득 교육	168(33.0)
직업능력향상 교육	105(20.6)
학위취득 교육(학점은행제)	19(3.7)
인문교양 교육	41(8.1)
문화예술 교육	139(27.3)
시민의식 교육	10(2.0)
기타	9(1.8)
없음	14(2.8)
무응답	4(0.8)
합계	509(100.00)



<그림 III-18> 평소 가장 받고 싶었던 평생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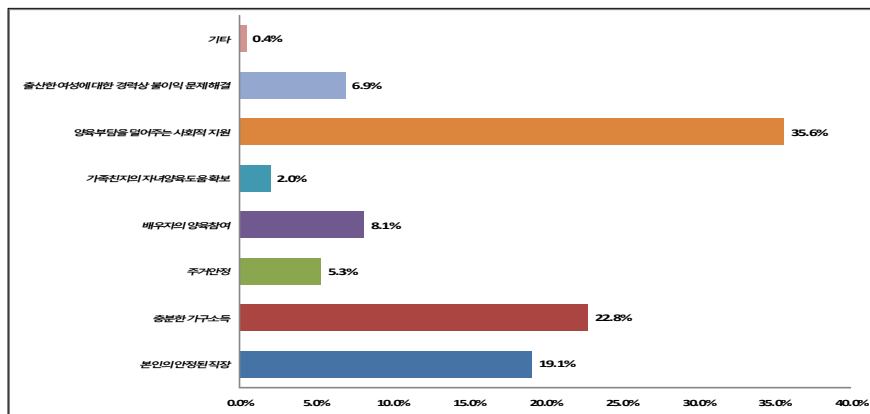
5) 가족 부문

○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본 결과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35.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은 충분한 가구소득(22.8%), 본인의 안정된 직장(고용안정)(19.1%), 배우자의 양육참여(8.1%), 출산한 여성에 대한 경력상 불이익 문제 해결(6.9%), 주거 안정(5.3%)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Ⅲ-41> 여성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본인의 안정된 직장 (고용안정)	97(19.1)
충분한 가구소득	116(22.8)
주거안정	27(5.3)
배우자의 양육참여	41(8.1)
가족, 친지의 자녀양육 도움 확보	10(2.0)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	181(35.6)
출산한 여성에 대한 경력상 불이익 문제 해결	35(6.9)
기타	2(0.4)
합계	509(100.00)



<그림 Ⅲ-19> 여성의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

- 따라서 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한 경우 남편도 산후휴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임. 또한 자신의 안정된 고용유지 및 양육에 대한 공적 부담의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보육지원제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순위 제도를 살펴본 결과 직장 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17.9%)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영아(만3세 미만) 보육시설의 확충(17.3%),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10.0%), 육아지원 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9.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8.1%), 가정 내 시간제 아동돌보미 지원(7.5%), 24시간 보육(6.9%),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6.7%),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5.9%), 유치원의 공교육화(4.9%), 민간보육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2.9%)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 특히 저출산사회를 맞이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유아 보육지원시설의 확충 및 직장보육시설·방과 후 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제도에 대한 공적 부담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질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Ⅲ-42> 가장 필요한 보육지원제도(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영아(만3세 미만) 보육시설의 확충	88(17.3)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	51(10.0)
시간 연장형 보육의 확대	12(2.4)
24시간 보육 등	35(6.9)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	34(6.7)
가정 내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	38(7.5)
직장보육시설 확충	91(17.9)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41(8.1)
유치원의 공교육화	25(4.9)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30(5.9)
민간보육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15(2.9)
육아지원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	49(9.6)
합계	509(100.00)

○ 한편 가장 필요한 보육지원제도 중 2순위를 비교해 보면 육아지원 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1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12.8%), 유치원의 공교육화(9.4%),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지역아동센터 등) (9.4%), 가정 내 시간제 아동돌보미 지원(8.6%),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7.9%),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7.9%), 시간 연장형 보육의 확대(7.7%),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7.1%), 영아(만3세 미만) 보육시설의 확충(3.9%), 민간보육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3.7%)순으로 각각 나타났음.

<표 III-43> 가장 필요한 보육지원제도(2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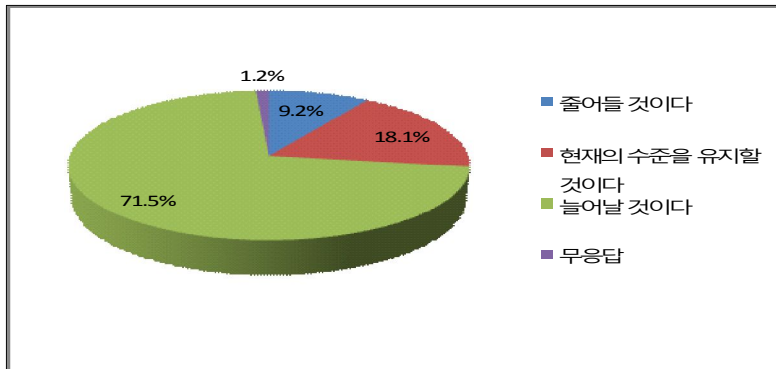
구분	빈도(백분율)
영아(만3세 미만) 보육시설의 확충	20(3.9)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	41(7.9)
시간 연장형 보육의 확대	39(7.7)
24시간 보육 등	15(2.6)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	36(7.1)
가정 내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	44(8.6)
직장보육시설 확충	65(12.8)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40(7.9)
유치원의 공교육화	48(9.4)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지역아동센터 등)	48(9.4)
민간보육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19(3.7)
육아지원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	84(16.5)
합계	509(100.00)

- 향후 예상되는 사교육비 지출 방향에 대해 기혼자에 한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늘어날 것이다(71.5%)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18.1%), 줄어든 것이다(9.2%)로 응답하여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표 III-44> 향후 사교육비 지출 방향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줄어든 것이다	30(9.2)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59(18.1)
늘어날 것이다	233(71.5)
무응답	4(1.2)
합계	326(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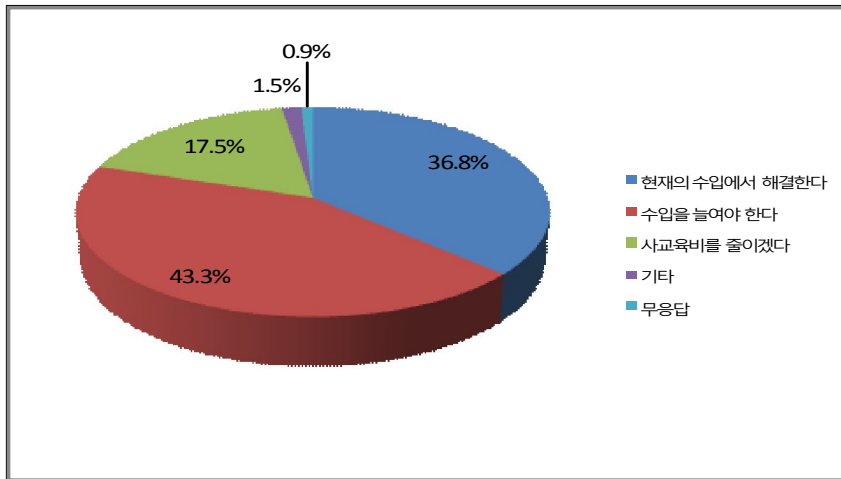
<그림 Ⅲ-20> 향후 사교육비 지출 방향

○ 또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게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지금보다 더 수입을 늘려야 한다(43.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현재의 수입에서 해결한다(18.1%), 사교육비를 줄이겠다(17.5%)순으로 응답하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응답보다 계속해서 사교육비를 충당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Ⅲ-45>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게재정 운영 방향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현재의 수입에서 해결한다	120(35.8)
수입을 늘려야 한다	141(43.3)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57(17.5)
기타	5(1.5)
무응답	3(0.9)
합계	326(100.00)



<그림 III-21>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계재정 운영 방향

- 가구소득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입을 늘려야 한다(49.1%)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25.5%), 현재의 수입에서 해결한다(23.6%) 순으로 나타나며,
-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현재의 수입에서 해결한다(46.0%)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37.9%), 사교육비를 줄이겠다(16.1%)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수입을 늘려야 한다(45.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현재의 수입에서 해결한다(39.6%), 사교육비를 줄이겠다(13.2%)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모든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보다는 좀 더

수입을 늘려서라도 사교육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고 있음.

<표 III-46> 가구소득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계재정 운영 방향

(단위: 명, %)

구 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계 재정 운영 방향						χ ² 검증
		현재의 수입에서 해결한다	수입을 늘려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기타	무응답	
전 체	326	120 (36.8)	141 (43.3)	57 (17.5)	5 (1.5)	3 (.9)	-
200만원 미만	55	13 (23.6)	27 (49.1)	14 (25.5)	1 (1.8)		χ ² =34.030 df=20 (p= .026)
200-300만원 미만	99	31 (31.3)	44 (44.4)	20 (20.2)	3 (3.0)	1 (1.0)	
300-400만원 미만	87	40 (46.0)	33 (37.9)	14 (16.1)			
400-500만원 미만	53	21 (39.6)	24 (45.3)	7 (13.2)		1 (1.9)	
500만원 이상	27	14 (51.9)	11 (40.7)	1 (3.7)		1 (3.7)	
무응답	5	1 (20.0)	2 (40.0)	1 (20.0)	1 (20.0)		

※ 기혼자에 한해, n=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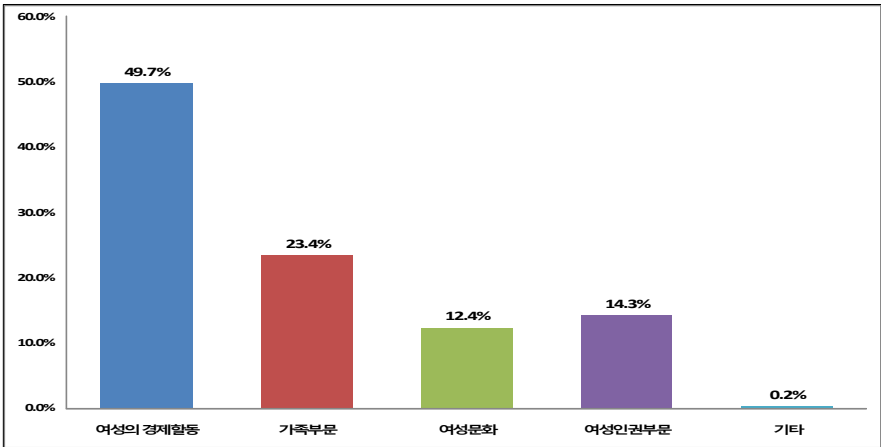
6) 정책적 지원 부문

○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정책 등)(49.7%)로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23.4%)로 양육 및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표 III-47>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분야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여성의 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정책 등)	253(49.7)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	119(23.4)
여성문화 (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	63(12.4)
여성인권 부문 (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	73(14.3)
기타	1(0.2)
합계	509(100.00)



<그림 III-22>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분야

○ 다음으로는 여성인권 부문(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14.3%), 여성문화(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12.4%) 순으로 응답하였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여성의 안전 및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여짐.

- 한편 연령대별로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위의 <표 III-49>와 같이 20대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정책 등)(45.9%)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은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22.2%), 여성인권 부문(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21.5%), 여성문화(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9.6%)순으로 응답하였음.
- 3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정책 등)(48.1%)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은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33.9%), 여성문화(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10.9%), 여성인권 부문(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7.1%) 순으로 나타났음.
- 40대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정책 등)(53.9%), 여성인권 부문(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16.2%), 여성문화(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15.7%),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14.1%)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경제활동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48>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분야

(단위: 명, %)

구 분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분야								χ^2 검증
		여성의 경제활동 (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정책 등)	가족 부분(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	여성문화 (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분)	여성인권 부분 (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	기타			
전 체	509	253 (49.7)	119 (23.4)	63 (12.4)	73 (14.3)	1 (.2)		-	
20대	135	62 (45.9)	30 (22.2)	13 (9.6)	29 (21.5)	1 (.7)		$\chi^2=34.429$	df=8 (p= .000)
30대	183	88 (48.1)	62 (33.9)	20 (10.9)	13 (7.1)				
40대	191	103 (53.9)	27 (14.1)	30 (15.7)	31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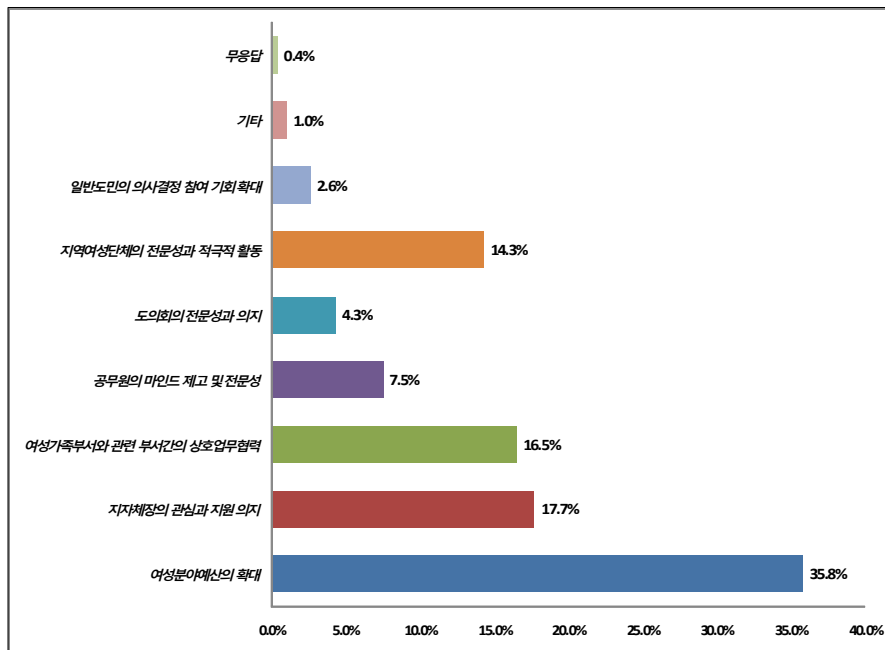
○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여성 분야예산의 확대(35.8%)가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의지(17.7%),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상호업무협력(16.5%),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활동(14.3%),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7.5%), 도의회 의원 전문성과 의지(여성·가족 관련 조례 제정)(4.3%), 일반 도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2.6%) 순으로 응답하였음.

○ 그러므로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간의 상호 업무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여짐. 또한 지역의 다양한 여성관련 단체간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전문적 자질 함양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짐.

<표 Ⅲ-49>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여성 분야예산의 확대	182(35.8)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의지	90(17.7)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상호업무협력	84(16.5)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	38(7.5)
도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지(여성·가족 관련 조례 제정)	22(4.3)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73(14.3)
일반 도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	13(2.6)
기타	5(1.0)
무응답	2(0.4)
합계	509(100.00)



<그림 Ⅲ-23>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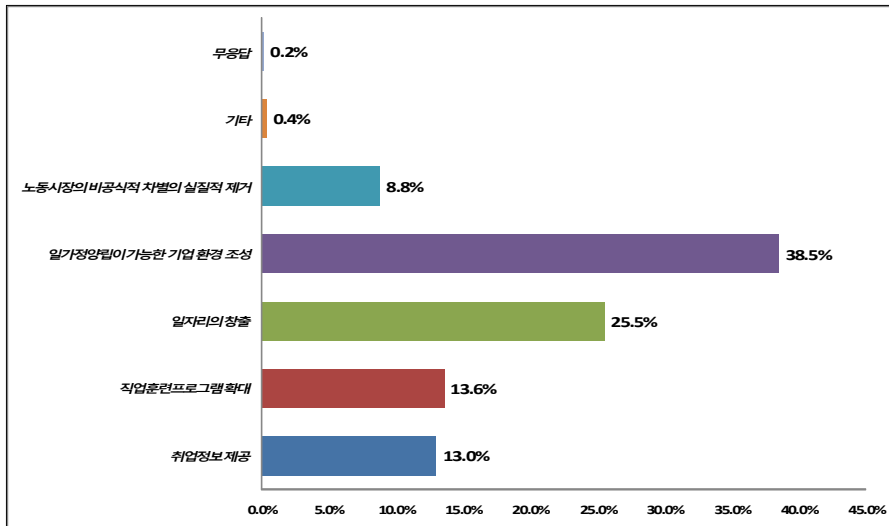
○ 경상북도 여성취업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응답자의 38.5%가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25.5%),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13.6%), 취업정보 제공(13.0%),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8.8%)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기업에서는 여성취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직업훈련기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확대 및 구인구직 등 취업 정보 제공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표 III-50> 경상북도 여성 취업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빈도(백분율)
취업정보 제공	66(13.0)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69(13.6)
일자리 창출	130(25.5)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	196(38.5)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	45(8.8)
기타	2(0.4)
무응답	1(0.2)
합계	509(100.00)



<그림 Ⅲ-25> 경상북도 여성 취업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 학력별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취업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졸이하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조성 (40.5%)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일자리 창출 (28.4%),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13.5%), 취업정보 제공(10.1%),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6.1%)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대학재학의 경우 일자리 창출(32.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조성(23.7%), 취업정보 제공(18.6%),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15.3%),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10.2%)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대졸이상의 경우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조성(40.4%), 일자리 창출(22.8%),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14.2), 취업정보제공(13.2%),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8.9%)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51> 학력별 경상북도 여성 취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단위: 명, %)

구 분		경상북도의 여성 취업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χ ² 검증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일자리의 창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	기타	무응답		
전 체	509	66 (13.0)	69 (13.6)	130 (25.5)	196 (38.5)	45 (8.8)	2 (.4)	1 (.2)	-	
고졸이하	148	15 (10.1)	20 (13.5)	42 (28.4)	60 (40.5)	9 (6.1)	1 (.7)	1 (.7)	χ ² =16.163 df=12 (p= .84)	
대학재학	59	11 (18.6)	6 (10.2)	19 (32.2)	14 (23.7)	9 (15.3)	-	-		
대졸이상	302	40 (13.2)	43 (14.2)	69 (22.8)	122 (40.4)	27 (8.9)	1 (.3)	-		

- 혼인상태별로 경상북도 여성취업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면 <표 III-53>와 같이 기혼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조성(38.7%)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24.2%),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16.3%), 취업정보 제공(12.9%),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7.4%) 순으로 나타났다.

- 미혼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조성(38.2%)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일자리 창출(27.9%), 취업정보 제공(13.9%),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2.1%),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7.9%)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52> 혼인상태별 경상북도 여성 취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단위: 명, %)

구 분	경상북도의 여성 취업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χ ² 검증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일자리의 창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	기타	무응답		
전 체 509	66 (13.0)	69 (13.6)	130 (25.5)	196 (38.5)	45 (8.8)	2 (.4)	1 (.2)	-	
기혼 326	42 (12.9)	53 (16.3)	79 (24.2)	126 (38.7)	24 (7.4)	2 (.6)	-	χ ² =47.565 df=18 (p= .000)	
미혼 165	23 (13.9)	13 (7.9)	46 (27.9)	63 (38.2)	20 (12.1)	-	-		
기타 14	1 (7.1)	2 (14.3)	4 (28.6)	5 (35.7)	1 (7.1)	-	1 (7.1)		
무응답 4	-	1 (25.0)	1 (25.0)	2 (50.0)	-	-	-		

3. 소결

○ 본 연구는 사회, 문화, 경제적 영역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만 20~40대 여성 총 509명을 대상으로, 23개 시·군을 북부자원권, 중서부내륙권, 남부도시권, 동부연안권으로 나누어 총 509명을 대상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 안전 및 인권부분, 문화생활부분, 가족부분, 경상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가 37.5%, 30대 36.0%, 20대 26.5%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상 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권역별로는 동부연안권 33.2%, 중서부내륙권 26.1%, 남부도시권 22.8%, 북부자원권 17.9%로 나타났음.
- 경상북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15-20년 미만 12.6%, 5-10년 미만 9.2%, 10-15년 미만 8.4% 순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배우자 소득 포함)은 200-300만원 미만 26.9%, 300-400만원 미만 24.2%, 200만원 미만 22.8%, 400-500만원 미만 14.5%, 500만원 이상 8.8% 순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일하고 있는 응답자의 직장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의 경우 59.2%, 재계약을 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15.7%), 무기 계약직(13.2%),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9.8%), 파견 용역 회사를 통해 근무하는 형태(2.1%)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정규직에 속하고 있음.
-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녀 양육 및 병행이 어렵다(41.8%), 가족이 아플 때 보살피기 힘들다(21.6%), 직장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가 불안정하다(9.4%),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5.6%), 기타 응답(19.2%) 등으로 나타나므로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이 필요하다 (33.1%),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하다(26.1%),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21.6%), 기타 (15.0%), 무응답(4.2%) 등으로 나타났다.
-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83.3%, 과거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16.7%를 응답하였음. 또한 향후 취업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한다(76.1%)가 가장 높았으며, 희망하지 않는다(23.4%), 무응답(0.5%) 순으로 나타나 향후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취업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76.1%)가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23.4%)로 각각 나타났으며 취업형태는 전일제(53.3%), 시간제(42.6%), 기타 (4.1%) 순으로 나타났다.
-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27.8%),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23.7%),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10.7%),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9.5%),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8.9%), 원하는 종류의 일자리가 없어서(7.1%)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육아 및 가사 때문에(46.2%), 학업 중이어서(19.2%), 일할 생각이 없어서(7.7%), 내가 원하는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7.7%), 건강, 장애 등의 문제로 일하기가 어려워서(5.8%). 창업을 하려고(3.8%)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시간제 고용 기업 확대(25.2%), 기업의 여성구인 활동 확대(25.2%),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20.3%),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17.1%), 취업알선 서비스(8.6%) 순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므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및 기업의 여성취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구인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출퇴근 시간(31.5%), 기업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 수행 준수(29.3%), 보육지원의 확대(17.1%),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10.4%),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10.4%)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업의 여성의 산전후 휴가제도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유연한 근로시간의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해야 할 것임.
- 향후 취업을 고려할 때 가장 충족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27.1%)이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에 쉬운 거리에 일할 수 있는 기업(25.9%), 내 능력에 맞게 보수가 주어진다면(21.0%), 근로시간이 맞으면(19.4%) 등으로 나타나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취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안전 및 인권부분에서는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방법용 CCTV 증설(44.4%)이 가장 많았으며, 경찰 순찰활동 강화(23.4%), 더 많은 가로등의 설치(7.5%), 지역 주민의 자발적 순찰(7.1%) 학교 안전 지킴이 제도의 활성화(6.5%), 신속한 신고체계(5.1%) 순으로 나타나 지역의 방법용 CCTV 증설이나 경찰 순찰 활동 강화 등 지역 안전증진에 적극 참여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되었음.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40.7%),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22.0%),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16.5%),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제공 등)(11.4%) 및 피해가정 자녀 보호(8.8%) 순으로 조사되었음.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56.4%),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12.6)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11.8%), 소규모 단위의 성폭력 예방교육 정기적 실시(11.6%),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제공 등)(6.7%)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문화 활동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끔 이용하는 경우(55.2%), 다음으로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23.4%), 자주 이용하는 경우(21.4%)로 각각 조사되었음.

- 따라서 지역민의 문화생활 참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겠으며,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지역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보제공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겠음.
-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본 결과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35.6%), 충분한 가구소득(22.8%), 본인의 안정된 직장(고용안정)(19.1%), 배우자의 양육참여(8.1%), 출산한 여성에 대한 경력상 불이익 문제 해결(6.9%), 주거 안정(5.3%) 순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므로 출산여성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한 경우 남편도 산후휴가(육아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임. 또한 자신의 안정된 고용 유지 및 양육에 대한 공적 부담의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보육지원제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순위 제도는 직장 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17.9%)이 가장 높았으며, 영아(만3세 미만) 보육시설의 확충(17.3%),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10.0%), 육아지원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9.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8.1%), 가정 내 시간제 아동돌보미 지원(7.5%), 24시간 보육(6.9%),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6.7%),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5.9%), 유치원의 공교육화(4.9%), 민간보육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2.9%) 순으로 각각 나타났음.
- 향후 예상되는 사교육비 지출 방향에 대해 기혼자에 한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늘어날 것이다(71.5%)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18.1%), 줄어든 것이다(9.2%)로 응답하여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를 위해서는 양육부담에 대한 공적 부담 확대 및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할 것임
-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여성의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정책 등)(49.7%)로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23.4%)로 양육 및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다음으로는 여성인권 부문(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14.3%), 여성문화(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12.4%) 순으로 응답하였음.
-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안전 및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최근 사회적 이슈에 따라 많은 관심을 보였음.
-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 분야예산의 확대(35.8%),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의지(17.7%),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상호업무협력(16.5%),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

극적 활동(14.3%),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7.5%), 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지(여성·가족 관련 조례 제정)(4.3%), 일반 도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2.6%) 순으로 응답하였음.

- 따라서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간의 상호 업무협력 네트워크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또한 지역의 다양한 여성관련 단체간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전문적 자질 함양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IV



2040 경북여성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IV. 2040 경북여성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 심층면접은 2011년도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T.O.P. 경북 프로젝트-정책수요조사’시 제시된 심층면접 분석결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설문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개별방문 면접조사시 병행하여 실시함.
- 표집된 연구대상에 대해 가구 및 주거생활, 취업상태 및 구직, 결혼 및 가족생활, 출산 및 자녀 양육, 일상생활 및 안전, 건강, 문화생활 및 향상 증진방안,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질문 그 결과를 조사원이 직접 기록하여 자료로 활용함.

2. 결과 분석

1) 일자리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시간제 고용 기업 확대(25.2%), 기업의 여성구인 활동 확대(25.2%),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20.3%),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17.1%), 취업알선 서비스(8.6%) 순으로 조사되었음.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여성들의 구직활동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토

로하고 있음. 정규직 일자리에의 진입장벽으로 주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

- 20~30대 기혼여성의 경우 보육과 양육의 부담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여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직장여성의 경우 역시 정규직 보다는 시간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음. 40대 여성 역시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마찬가지로 상황임. 특히 취업을 하기 전 자기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직업학교나 취업관련 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는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20~40대 여성의 경우 취업을 선호하는 원인이 대부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전반적인 정책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과 여성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해야 함. 우선적으로는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 즉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되, 상담내용도 직업교육과 알선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 대상의 경우, 일·가정 양립문제, 육아와 보육 등에 대한 상담의 폭을 확대하고, 상담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직업상담, 경력설계, 직업탐색, 훈련정보제공, 취업이후의 직장적응에 관련된 애로와 문제점 극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확대해야함.
- 기혼여성 대상 일자리 지원사업은 일·가정 양립문제를 고려하여 시간활용도, 근접성, 육아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인터

넷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직업교육 등 기혼여성의 교육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 대부분의 구직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특성과 지역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원함. 기존의 일자리에 여성 인력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성인력을 흡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친화적이고 지역의 수요가 예측가능한 직종을 발굴이 전제되어야 함.

2) 보육 및 양육, 저출산 문제

○ 보육 및 양육문제는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자녀를 둔 모든 여성들이 고민하는 문제임. 실제 조사를 통해 응답한 내용을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는 자녀 양육 및 병행이 어렵다(41.8%), 가족이 아플 때 보살피기 힘들다(21.6%), 직장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가 불안정하다(9.4%),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5.6%), 기타 응답(19.2%) 등으로 나타나므로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돌보미 지원이 필요하다 (33.1%), 개인 보육의 경우 비용단가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하다(26.1%), 보육 시설의 방과 후 보육 연장 (21.6%), 기타 (15.0%), 무응답(4.2%) 등으로 나타났음.

○ 직장 구할 때 가장 힘든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27.8%), 원하는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23.7%),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10.7%),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해서(9.5%), 취업에 관한 정보와 경로가 부족해서(8.9%), 원하는 종류의 일자리가 없어서(7.1%) 순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여성들은 자녀들의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사회적 문제로서 그 해결방안 역시 법제도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구체적인 사례로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고민, 어린 자녀들의 놀이시설 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와, 아동 발달에 맞는 상담 및 멘토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

○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안전한 돌봄시설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으며, 특히 중고생의 경우 학습과 관련해서 열악한 학습여건에 대한 불만이 강하였음.

○ 이외 지난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몇몇 응답자들은 방과후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이나 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반복적인 재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의 저출산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수준임. 가족 내 부부간 성별분업의 더딘 변화 내지 지속은 한국

여성의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됨. 취업여성의 경우 공평한 경제 부담, 불공평한 집안일 부담, 여성이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가족 내의 역할분담 등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미취업 여성의 경우 역시 경제적 책임을 남자가 지니까, 여성은 집안일을 전적으로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됨.

-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본 결과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35.6%), 충분한 가구소득(22.8%), 본인의 안정된 직장(고용안정)(19.1%), 배우자의 양육참여(8.1%), 출산한 여성에 대한 경력상 불이익 문제 해결(6.9%), 주거 안정(5.3%) 순으로 조사되었음.
-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보육지원제도들에 대해 직장 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 영아(만3세 미만) 보육시설의 확충,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10.0%) 등을 꼽고 있음.
- 향후 예상되는 사교육비 지출 방향에 대해 기혼자에 한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늘어날 것이다(71.5%)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18.1%), 줄어들 것이다(9.2%)로 응답하여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출산율의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출산여성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한 경우 남편도 산후휴가(육아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임. 또한 자신의 안정된 고용

유지 및 양육에 대한 공적 부담의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를 위해서는 양육부담에 대한 공적 부담 확대 및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할 것임.

3) 여성의 문화생활 및 평생학습

- 최근 1년간 문화 활동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끔 이용하는 경우(55.2%), 다음으로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23.4%), 자주 이용하는 경우(21.4%)로 각각 조사되었음.
- 일부 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및 군단위 지역 거주 여성들은 문화적 여가 시설의 부재 및 시설 접근성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함. 또한 문화센터의 일률적인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또한 뮤지컬, 연극 등 공연문화 접근성이 어려움을 토로함.
- 문화센터나 여성회관 등에서 시행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있었음. 주로 노래, 요가, 요리 등 천편일률적인 사업위주이며, 간혹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구직과는 연결되기 어려운 모양새만 갖춘 프로그램임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민의 문화생활 참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겠으며,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지역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보 제공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겠음. 더불어 여성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민들의 학습욕구 및 문화향유권을 충족시켜야 할 것임.

4) 지역사회 적응

- 이외 귀농가족이나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정책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직까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많으며, 가정내적으로는 자녀와 언어소통의 문제로 부부간, 모자간 갈등 폭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지속적이며 다각도로 학교 및 사회적응 훈련 방안 모색해야 함.
-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언어교육이나 가정상담 등과 관련되어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교육이 대부분임. 자기개발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이처럼 급변하는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따라, 그동안 지원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함.

5) 안전 및 인권

-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방법용 CCTV 증설(44.4%)이 가장 많았으며, 경찰 순찰활동 강화(23.4%), 더 많은 가

로등의 설치(7.5%), 지역 주민의 자발적 순찰(7.1%), 학교 안전 지킴이 제도의 활성화(6.5%), 신속한 신고체계(5.1%) 순으로 나타나 지역의 방법용 CCTV 증설이나 경찰 순찰 활동 강화 등 지역 안전증진에 적극 참여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되었음.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40.7%),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22.0%),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16.5%),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제공 등)(11.4%) 및 피해가정 자녀 보호(8.8%) 순으로 조사되었음.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강화(56.4%),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12.6)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11.8%), 소규모 단위의 성폭력 예방교육 정기적 실시(11.6%),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자활, 의료, 주거, 일자리 제공 등)(6.7%)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대-40대 여성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도 안전 및 인권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두드러짐. 본인들은 물론 자녀를 둔 응답자가 많아서 자녀의 성폭력, 학교폭력 문제와 가정내 폭력 문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범죄 및 교통사고 등의 안전문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안전 및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는 별도로 위기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임. 어떠한 지원기관이 있는지, 어떻게 연락과 도움을 받아야 하

는지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모르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응답자들이 그대로 위기에 노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음.

- 일부 면접자중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경북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간 연계 및 협력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음.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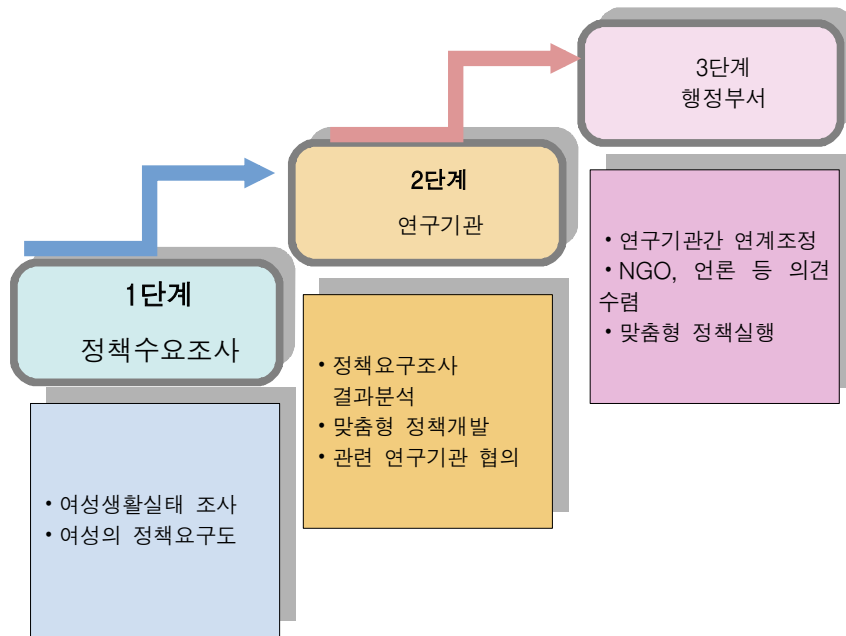
•

결론 및 정책 제언

V. 결론 및 정책 제언

-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로 여성의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정책 등),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 여성인권 부문(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분 등), 여성문화(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들고 있으며, 여성의 안전 및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최근 사회적 이슈에 따라 많은 관심을 보였음.
- 무엇보다 여성구직 및 양육 등 각종 지원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함.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의 접근성 및 인지도를 재검토하여 이를 연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여성일자리 창출)을 해야 함.
-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분야예산이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외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의지,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상호업무협력,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간의 상호 업무협력 네트워크이 중요할 것임.

또한 지역의 다양한 여성관련 단체간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전문적 자질 함양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그림 V-1> 체감형 정책수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정

○ 본 조사를 통해 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문화복지와 교육복지에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향후 이러한 영역에 대한 심층적이며 폭넓은 조사를 통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견된 다양한 정책욕구들을 기존 정책들과 교차해 봄으로써 정책의 공백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정책 과제와 개입 영역을 제안하여야 할 것임.

<표 V-1> 정책적 요구 및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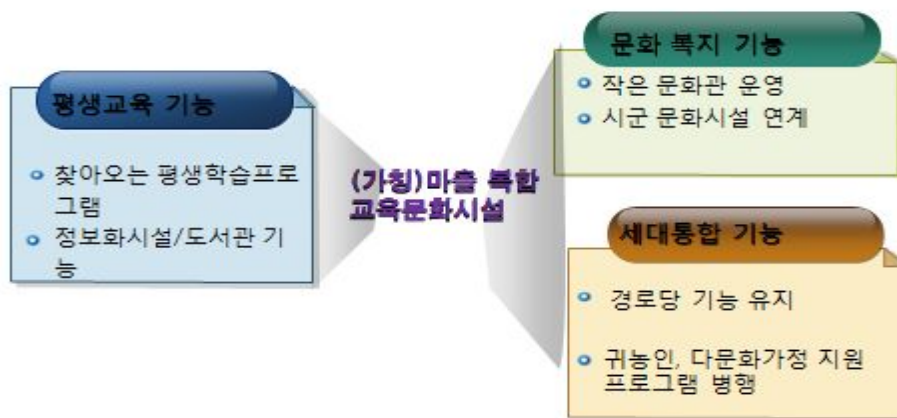
정책적 요구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정책 효과
일가 정 양립 요구	-현실적인 일자리 지원-여성 친화적, 지역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안전한 돌봄시설, 자녀학습 여건 조성	▶ ▶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 ▶ 정책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교육 적 요구	-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종사자 인성 및 전문 성 점검 및 보수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지식나눔 기부 활성화		
문화 적 요구	-문화공연 바우처 제도 운영 -시군소유 공간을 활용한 중 합 문화복지시설 구축 -평생학습시대 친편일률적인 교육프로그램 탈피		
지역 사회 적 요구	-귀농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확대		
		-관련 기관간 연 계 및 협력 구축 -원스탑 지원기 관 활성화 -각종 정책모니 터링 강화	-출산률 제고 및 경제적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가능 -교육 및 문화적 권리 향유 등 거 주환경 개선을 통 한 문화적 빈곤감 해소 및 지역주민 이탈방지 (평생학습과 문화 복지의 결합)

○ 마지막으로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 : 보육 및 돌봄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농어촌지역의 자녀 학습관련 공적 영역 강화(공교육과 사교육의 완충지대 확대/2011년 조사에서는 지역사회출신 대학생, 혹은 지

역민의 지식나눔 활성화)

- * 문화적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 문화향유권 강화
- * 평생학습시설 확대 및 다양화 : 성인 교육복지 강화
- * 성폭력, 가정폭력관련 연구기관의 설치 및 지원기관 일원화 체계 확립(2011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도 유사한 상황임)
- *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상 많은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화적 욕구와 교육적 욕구 등을 통합하여 충족할 수 있는 복합형 기관 및 시설 존치(기존 마을주민센터나 경로당 등을 이용한 복합교육문화시설/ 정보화시설 연계/ 지역주민 세대별 통합 효과 기대가능함)



<그림 V-2> 체감형 정책 사례

참 고 문 헌

- 김태홍 외(2012). 최근 10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 박건(2007). 충청북도 가족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이경숙, 김수연(2011).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T.O.P.경북 프로젝트- 경상북도 차세대여성 체감형 정책 수요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2011-6.
- 장혜경 외(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5.
- 정인선 외(2010). 민선5기 서울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024.
- 정형욱 외(2012).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05.
- 통계청 자료

● 부 록 ●

ID

--	--	--	--

경상북도 2040 생활체감형 정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경상북도 출연 여성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연구사업으로 『경상북도 2040 생활체감형 정책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경상북도의 2040 여성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수요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귀중한 의견들은 여성 정책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 34조에 의거,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자료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2012년 9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문의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수행기관 : ㈜리서치코리아

■응답자 일반현황

■ 거주지역	① 포항시	② 경주시	③ 김천시	④ 안동시	⑤ 구미시	⑥ 영주시
	⑦ 영천시	⑧ 상주시	⑨ 문경시	⑩ 경산시	⑪ 군위군	⑫ 의성군
	⑬ 청송군	⑭ 영양군	⑮ 영덕군	⑯ 청도군	⑰ 고령군	⑱ 성주군
	⑲ 칠곡군	⑳ 예천군	㉑ 봉화군	㉒ 울진군	㉓ 울릉군	
■ 연령(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 경북주거기간	① 1년 미만		② 1-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1-13.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 중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38.2%)' 일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귀하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마련되기를 원하십니까?

(_____)

1-14. 일자리를 갖고자 할 때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33.7%)' 구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받고 싶은 직업훈련으로 컴퓨터 기능(33.4%), 조리(25.4%), 미용분야(19.5%) 등이 있었습니다. 귀하가 만약 취업을 한다면 어떤 계통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원하십니까?(_____)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아래에서 선택해주시요.

- ① 의료복지분야(간병인, 간호사 등)
- ② 조리분야(요리사, 조리사 등)
- ③ 미용분야(미용사, 네일 아트 등)
- ④ 컴퓨터 기능 분야(제품 디자인, 생산설계, 출판편집 등)
- ⑤ 기타 (_____)

2. 일자리를 구할 경우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사와 병행이 가능한 조건(시간제, 휴가사용)(53.8%), 임금수준(20.0%)으로 나타났고, 임금수준은 100만원대(54.6%)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취업하려면 아래 조건 중 가장 충족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퇴근이 쉬운 거리에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하겠다.
- ②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할 기업이 있으면 하겠다.
- ③ 내 능력에 맞게 보수가 주어지면 하겠다.
- ④ 근로시간이 맞으면 하겠다.
- ⑤ 기타 (_____)

Part 3. 문화 부문

6.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문화활동을 위해 아래 문화시설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이용한적 없음 (☞ 문7로) ② 가끔 이용함 (☞ 문6-1로)
 ③ 자주 이용함 (☞ 문6-1로)

문화시설 :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박물관, 미술관,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6-1. 귀하께서 문화시설 이용 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6-2. 지역 문화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③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④ 교통이 불편하다
 ⑤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⑥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⑦ 함께 갈 사람이 없다 ⑧ 기타()

7. 귀하께서는 여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②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③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④ 기타()

8.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받고 싶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격증 취득 교육 ② 직업능력향상 교육 ③ 학위취득 교육(학점은행제)
 ④ 인문교양 교육 ⑤ 문화예술 교육 ⑥ 시민의식 교육
 ⑦ 기타 () ⑧ 없음

Part 4. 가족 부분

9.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의 안정된 직장 (고용안정) ② 충분한 가구소득
- ③ 주거안정 ④ 배우자의 양육참여
- ⑤ 가족, 친지의 자녀양육 도움 확보 ⑥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
- ⑦ 출산한 여성에 대한 경력상 불이익 문제 해결 ⑧ 기타 ()

10.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보육지원 제도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육지원 제도를 순위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영아(만3세미만) 보육시설의 확충 ②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
- ③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④ 24시간 보육 등
- ⑤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 ⑥ 가정 내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
- ⑦ 직장보육시설 확충 ⑧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⑨ 유치원의 공교육화 ⑩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지역아동센터 등)
- ⑪ 민간보육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⑫ 육아지원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

※ 2011년 ‘경상북도 차세대 체감형 정책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40.9%), 충분한 가구소득(3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54.4%)을 줄이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 안전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법용 CCTV증설(35.0%), 더 많은 가로등 설치(25.3%), 경찰활동 강화(18.3%)순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싶은 서비스로 자녀교육지원(41.2%), 안정적인 취업(30.8%)로 나타났다.

11. **(기혼여성인 경우만 질문)** 귀댁의 앞으로 예상되는 사교육비 지출 방향은 어떠합니까?

- ① 줄어들 것이다 ②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③ 늘어날 것이다

12. **(기혼여성인 경우만 질문)** 귀하께서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 ① 현재의 수입에서 해결한다 ② 수입을 늘려야 한다
③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④ 기타 ()

Part 5. 정책적 지원

13. 귀하께서 보시기에 경상북도 여성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여성의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정책 등)
② 가족 부문(보육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정책 등)
③ 여성문화(문화, 여가, 교육 및 복지 부문)
④ 여성인권 부문(폭력 및 안전, 건강정책 부문 등)
⑤ 기타 ()

14. 귀하께서는 경상북도의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 분야예산의 확대 ②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의지
③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상호업무협력 ④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
⑤ 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지(여성·가족 관련 조례 제정)
⑥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⑦ 일반 도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 ⑧ 기타 ()

15. 귀하께서는 경상북도의 여성 취업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정보 제공 ②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③ 일자리의 창출 ④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
 ⑤ 노동시장의 비공식적 차별의 실질적 제거(연령, 학력, 외모, 성차별 등)
 ⑥ 기타()

16. 마지막으로 2040 여성 정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분류용 질문

D1.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재학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D2. 귀하의 혼인상태는?

- ① 기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동거

D3. 귀하의 가족형태는?

- ① 독신 ② 핵가족(부모+자녀) ③ 확대가족(조부모+부모+자녀) ④ 기타()

D4. 월 평균 가구소득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응답자 기록사항> ☞ 아래는 설문의 신뢰도를 위해 기입하는 난입니다.

면접원명		응답자명		응답자 전화번호	
------	--	------	--	-------------	--

2040경북여성 세감영 정책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발행일 : 2012년 11월 24일

발행처 : **경상북도**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인쇄처 : 정문디자인기획

전화 / (053)817-1996
